A STUDY ON THE TREE MODEL OF PAUL TRIPP AS A FRAMEWORK OF COUNSELING PREACHING

A THESIS-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ILL JONG PARK

MAY 2018

Contents

감사의 글

이 논문을

사랑하는 예쁜 두 딸 정민, 정원, 멋진 아들 예준

그리고 지금도 아들을 걱정하며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언제나 곁에서 응원해 주고

믿어준 아내, 조선숙에게

바칩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framework of counseling preaching that connects the important part of counseling and preaching in the pastoral ministry. I have tried to help the saints through biblical preaching who are in various situations of life how to interpret and apply their problems biblically in the relationship with God.

In this study, I proposed Paul Tripp's Tree Model as a framework for presenting the model of counseling preaching by integrat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ounseling and preaching. This model focuses on the condition of human heart and emphasizes on the change of it. It is an effective counseling technique for helping to discover the grace and will of God in matters through the change of heart, and for helping the personality and faith growth of the saints.

For this reason, I have made an effort to incorporate the Paul Tripp's Tree Model into preaching. I have cogitated the biblical counseling model, the Tree Model, as a new framework for counseling preaching and described its concrete method of works.

I. 서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전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편리함과 유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과학의 발전이 인간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는 가져다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을 물질에 종속하게 하는 존재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1)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물질문명과 분리가 쉽게 되질 않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는 인구 증거와 세계화로 국경은 해체되고, 이로 인해 무한 경쟁의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 학업의 부담이나 노동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현대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인의 대다수는 긴장하고 갈등하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런 현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일탈과 비행 그리고 향락과 쾌락으로 그런 영육간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문화적 풍토가 자리잡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 교회 역시 그 해결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Vernon Grounds는 다음과 같이 현대사회를 언급했다.

>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보다 더 비극적으로 진실 된 말은 없다. 사람들은 예외 없이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의 동편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인생들이다. 타락했을 뿐 아니라 연약한, 아니 약하디 약할 뿐 아니라 타락한 존재인 우리는 오류와 고통, 실패, 비극 그리고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 물론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외로움과 질병, 증오, 우울증, 권태감, 불안, 슬픔, 열등감 그리고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다.[1]

Grounds의 진술과 같이 인간은 타락 이후 수많은 외적 문제와 내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분이 사역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성도들이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이를 위한 목회자의 사역은 설교(예배)와 심방(상담)이라는 큰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사역은 제각기 그 전문성과 신학적 근거와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사역의 동반자로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역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몇몇 목회상담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시작되었다.[2] 특히 오덴은 '수년 동안 나는 이 두 학

---

[1] 송길원, "상담설교의 필요성," *그 말씀* (11월호 1994): 106.

[2] Thomas C. Oden and Donald E. Capps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문이 표명상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유사성이 숨어 있으며 하나의 목회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 없이 체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3]

오덴의 말처럼 설교와 상담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본 연구자는 이 두 가지 사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상담 설교라고 생각한다. 목회 상담과 설교, 이 두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담 설교이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성도들의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기독교 교리와 성경의 순수한 해석에 치우칠 때, 청중은 실질적인 자신들의 일상에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저 주일에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 성도들의 수동적 신앙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실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상담 설교의 유익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목회 상담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이민 목회의 현실에서 성도들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직접 상담을 받으러 나서기는 쉽지 않다. 설령 나온다 해도 목회자 스스로에게도 상담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상담 받는 것에 대한 노출을 꺼리고,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상담의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상담 자체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개인 상담의 공백을 상담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

[3] Thomas C. Oden, *Kerygma and Counseling: toward a covenant ontology for secular psychotherap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8), 26.

이와 같이 상담 설교가 성도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상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려면 상담의 여러 요소들이 상담설교 안에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가 상담적이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의 단계들이 포함되거나, 상담의 기법들이 포함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것을 위해서 상담 이론, 특별히 성경적 상담 이론을 상담 설교에 접목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제시하려고 한다.

사실 상담 설교의 필요성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상담 설교에 대해 연구해 왔다.[4] 상담 설교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상담 설교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신학적 토대와 상담 설교의 제이론들, 그리고 목회 상담과 설교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 설교의 필요성, 목회적 위치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다수의 학위논문들은 상담 설교의 적용점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5] 그리고 간혹 상담 설교 모델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다.

---

[4] 김한성, *상담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도날드 캡스, *목회상담과 설교* (서울: 솔로몬, 1996), 김만풍, *상담설교* (서울: 크리스챤서적, 1995), 토마스 오덴, *케리그마와 상담* (서울: 전망사, 1983), 연구논문으로는 김한성, "상담설교의 목회적 실용성에 관한 연구" (M.Div. diss., 장로회신학대학원, 2001), 김범준, "상담설교를 통한 치유사역의 가능성 연구" (M.Div. diss., 장로회신학대학원, 2004), 김모세, "목회적 돌봄과 상담에서 성서사용" (Ph.D. diss., 감리교신학대학원, 2011), 장원철, "목회자의 성경적 의식구조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목회상담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Ph.D. diss., 총신대신학대학원, 2004) 등 다수가 있다.

[5] 예를들면, 김병진, "목회적 돌봄을 위한 상담설교의 적용 가능성 연구" (M.Div. diss., 장로회신학대학원, 2001), 우성민, "상담설교의 목회 적용에 관한 연구" (M.Div. diss., 총신대신학대학원, 2003), 김인집, "상담설교의 치유 기능에 관한 연구" (M.Div. diss., 총신대신학대학원, 1996) 등이 있다.

상담과 설교를 접목시킨 상담설교 연구로는 로랜스 크랩의 성경적 상담을 상담설교에 적용한 최상익의 연구와 REBT(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이론을 상담설교에 적용한 박해철과 박세환의 연구가 있다.[6] 이처럼 상담이론과 설교를 접목한 상담설교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는 상담 이론 중 성경적 상담에 대해 연구한 후, 이를 통한 변화 과정 중심의 상담 설교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상담이론 중 성경적 상담을 택하여 설교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성경적 상담 이론이 인간의 문제의 핵심을 마음으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성경적 상담은 이러한 마음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설교와 성경적 상담의 동일한 목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목회 현장에 필요한 상담 설교를 연구함에 있어서 성경적 상담 이론을 적용한 상담 설교의 새로운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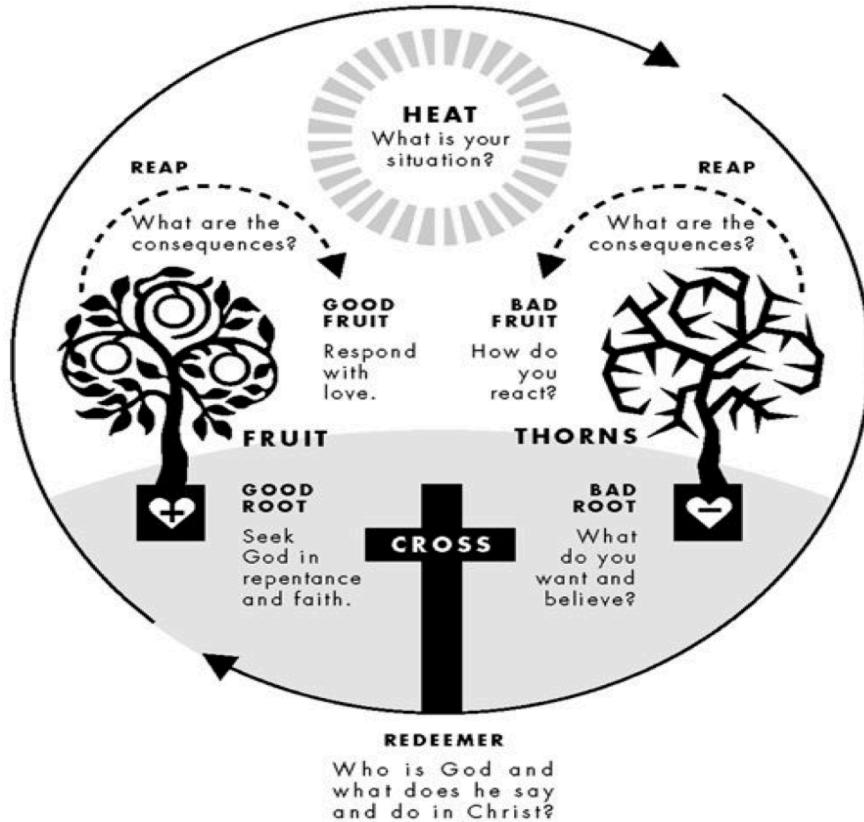
[6] 최상익, "로랜스 크랩의 성경적 상담의 '상담설교' 적용에 관한 연구" (M.Div. diss., 장로회신학대학원, 2000), 박해철, "REBT에 따른 상담설교의 목회적 적용 연구" (Ph.D. diss., 호남신학대학교, 2006), 박세환, "상담설교에 있어서 REBT의 적용에 관한 연구" (M.Div. diss., 장로회신학대학원, 2006) 등이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목회 상담과 설교, 그리고 상담 설교에 관한 저서들을 중심으로 문헌적 연구를 통해 상담 설교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먼저 도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적 상담에 관해서도 문헌적 고찰을 통해 성경적 상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이어서 문헌을 통한 상담설교와 성경적 상담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양자 간의 적용을 통한 상담설교의 구조적 틀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먼저 성경적 상담의 나무 모델을 적용한 상담설교의 구조적 틀을 구축하고, 이것에 맞게 성경을 분석하여 설교화 하는 방식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점검하여 본 연구의 기대와 제한성을 제시할 것이다. III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성경적 상담의 나무 모델[7]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7] Timothy S. Lane, Paul David Tripp, *How People Change* (Greensboro: New Growth Press, 2006), 95.

<그림 I. 1> How Do People Change?

위의 그림을 보면, 위쪽에 이글거리는 태양(Heat)이 있다. 작열하는 태양은 우리의 상황(What is our situation?)이다. 우리의 상황은 사막을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와 같이 정말 견디기 힘들다. 작열하는 태양 밑에 나무 세 그루가 나온다. 하나는 가시나무(Thorns), 다른 하나는 열매 나무(Fruit), 중앙에 있는 것은 십자가(Cross)이다. 숨 막히게 하는 태양의 열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시나무가 될 수 있고, 열매 나무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III에 가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본 연구의 I 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 및 범위를 소개하였다.

II 장에서는 우선 목회 상담과 상담 설교에 대해 논할 것이다. 먼저 목회 상담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제시한 후 목회 상담과 설교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 상담 설교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그 후 상담 설교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고찰을 할 것이다.

III 장에서는 성경적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논하며, 성경적 상담에서 제시하는 마음의 변화 과정을 담은 Paul Tripp's Tree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 상담을 어떻게 목회적 차원에서 설교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IV 장에서는 이제 앞에서 논한 상담설교의 새로운 구조적 틀로서 성경적 상담 모델에 기초한 Paul Tripp's Tree 모델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우선 Tree 모델에 따른 상담 설교의 구조적 틀을 제시한 후, Tree 모델에 따른 상담 설교의 구성과 절차를 설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Tree 모델에 따른 상담 설교의 실제적 예를 제시할 것이다.

V 장에서는 끝으로 성경적 상담 모델에 기초한 상담설교의 필자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본 연구의 장점과 제한성 그리고 상담설교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상담과 설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A. 목회 상담(Pastoral Counseling)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1. 목회 상담 정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현대 사회는 여러 면에서 발전해 왔으며, 편리함과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진보하고 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이고 일반화된 우울증이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람들은 점점 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당황하며 불안해 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압박들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상담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게 하고 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현대 교인들의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1]

일반적인 상담들이 돌봄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일부분 또는 모든 측면 (정서적, 인지적, 의지적, 사회적, 도덕적 등)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말한다면 목회 상담이란 “목회자가 신학적 배경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인간

---

[1] Kenneth L. Swetland, *Facing Messy Stuff in the Church* (Grand Rapids: Kregel Academic & Professional, 2005), 9.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해하게 하며 더 나아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성경적 원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련의 과정[2]"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의 속사람(Inner being and life)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자지고 '세움과 회복'을 지원하는 모든 과정이라 할 수 있다.[3]

목회 상담(Pastoral Counseling)이란 '목회'와 '상담'의 두 영역을 독특성이 합쳐진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목회 상담이라고 부를 때는 목회자의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이라는 큰 틀 속에 포함되는 부분적인 영역을 가리키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목회 상담으로써 목회자들이 주로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며 보편적인 상담을 지칭한다. 예컨대, 심방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전문적인 목회 상담으로서 이것은 신학적인 훈련과 아울러 심리학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며 실제적으로 임상 훈련을 거친 전문적인 목회자들이 전문적인 사역으로써 개인 또는 다수를 상대로 상담을 하는 것이다.[4]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야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를 언급하는데, '모사'라는 단어가 나온다. '모

---

[2] 전영복, *기독교 상담학* (서울: 엘멘, 1994), 31-32.
[3] David G. Benner, *Care of Souls*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Co, 1998), 22.
[4] 이관직, *목회 상담학* (서울: 한국목회상담연구소, 1999), 5-6.

사’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יֹעֵץ’는 ‘counsel, counselor, consult, to advise, give counsel, 조언, 상담, 협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5] 그리고 이 ‘모사’라는 단어를 ESV[6]에서는 상담자(Counselor)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는 메시야가 장차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역할 중 하나인 상담자로 예언한 한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는 중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4장 26절에서 ‘보혜사[7]’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대언자로 표현했다. 이는 헬라어 ‘παράκλητος’(파라클레토스)이다. 영어 성경은 이를 상담자 (Counselor, ESV, NIV), 위로자 (Comforter, AV)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상담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상담 전문가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서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담자가 되어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다면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상담을 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5] 이사야 9:6,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개역개정)

[6] In Isaiah 9:6,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ESV)

[7] 요한복음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개역개정)

이와 같이 목회 현장에서 중요한 목회 상담에 대해 오성춘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목회 상담이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교회의 위임을 받은 교역자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적색신호를 보내는 사람들과 만나, 교회를 대신하여 교회의 지원과 자원을 활용하여,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전인적인 인간회복을 할 수 있게 돕는 목회의 한 분야이다.[8]

위의 정의처럼 목회 상담은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사며, 상처와 질병의 치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격과 신앙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목회 상담의 목적

Lawrence J. Crabb은 목회 상담의 목표에 대해 '성숙'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9] 그는 이를 설명하기를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과 같이 되도록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봉사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도록 권면하는 것

---

[8]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23.

[9] Lawrence J.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7), 22-23.

이 기독교 상담자의 책임이며 목적이다[10]"라고 강조하였다.

게리 콜린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영생'과 '풍성한 삶'임을 강조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목회 상담자 역시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을 보여 주는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영생을 알려 주고자 하는 것이라 한다. 궁극적으로는 서로 연관된 목표를 갖는다고 말하며 목회 상담의 목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 목회 상담의 목표는 사람들을 각자의 생활에서보다 효과적으로 가능하도록 도와 주고 영적, 심리적,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갈등으로부터 자율을 얻도록 도와 주고 자기 자신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도록 도와 주며, 타인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개발, 유지하도록 도와 주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남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11]

하워드 클레너블은 "목회와 상담의 목표는 자기 – 이웃 – 사회의 전체성 개발이다[12]"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목회 상담의 목적은 근접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접적인 목적은 피상담자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해 주고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며 정서적 안정을 얻게 하여 성숙하고 책임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궁극

[10]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23.
[11] 게리 콜린스, *효과적인 상담*, 정동섭 역 (서울: 두란노, 1984), 23.
[12] 하워드 클레너블, *목회상담신론*, 박근원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87), 57.

적인 목적은 영적인 부분으로 피상담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며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 상담가는 1차적인 관심과 2차적인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상담해야 한다. 목회 상담가의 1차적인 관심은 성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며 즐거워 하도록 성도 자신에게 총체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2차적인 관심은 성도들이 총체적인 부분에서 전인격적으로 회복을 가능하도록 도와 주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평화, 사회적인 안정, 친밀한 관계 회복, 물질적인 삶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13]

3. 목회 상담의 기능과 특징

a. 목회 상담의 기능

목회 상담의 기능을 몇 가지로 살펴 보면, 첫째는 치유적 기능이다. 병든 영혼을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시워드 힐트너는 치유란 "단지 몸의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만으로 온전한 치유라고 말할

[13] 오성춘, *목회상담학,* 175.

수 없으며, 전인적 회복 즉 영혼 구원의 목적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4]"고 정의한다. 따라서 치유란 전인적 회복으로써 자신과 이웃,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안식의 기능이다. 이는 연약한 자의 실패, 결점, 부족 등을 함께 나눔으로써 영적 풍요와 함께 감사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목회 상담의 기능은 성숙을 포함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15]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떼까지 이르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숙은 구원의 확신 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을 통하여 신앙적 성숙을 이끌어 가는데 있는 것이다.

b. 목회 상담의 특징

목회 상담은 다른 일반 상담과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갖는다.[16] 첫째는 상담의 관계가 일반적인 상담의 경우 상담자와 내담자와 쌍방관계이지만, 목회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삼각관계(Three cornered Relationship)가 중요시 된다. 목회 상담도 일반 상담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담 기술을 사용하여 내담자를 돕지만, 상담자가 도운 만큼의 결과가 아닌 성령 하

---

[14] 시워드 힐트너, *목회신학 원론*,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서회, 1979), 180.

[15] 에베소서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라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개역개정)

[16] 오성춘, *목회상담학*, 375-76.

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담이 목회 상담인 것이다. 둘째는 일반 상담은 대부분 내담자가 문제를 통찰하거나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자아가 형성되면 상담을 종결하는데 비해 목회 상담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사랑과 정의 즉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전인격적인 삶을 회복시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더 나아가서 목회 상담만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 상담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받아들인다. 둘째, 목회 상담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목회 상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으로써 기도, 성경, 교리, 성례전 등 기독교 전통에서 물려준 상담의 자원을 이용한다. 특히 교회 공동체라는 자원이 있는데, 목회 상담자를 선택하고 훈련시켜, 목회 상담을 위임하고, 그 과정을 지도 감독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목회 상담은 과거와 현재의 문제까지 해결한다. 이는 목회 상담이 과거와 현재의 문제 뿐 아니라 전인치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목회 상담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 보도록 돕는다. 목회 상담은 가치관을 성경적인 원리의 바탕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인적인 영역에서 치유란 영육간의 회복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17]

B. 목회 상담과 설교의 상호관계성

1. 현대 목회에 있어서 목회 상담과 설교

목회 상담과 설교는 서로 다른 영역인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대 목회의 두 축은 Donald Capps가 말한 것처럼 목회 상담과 설교 즉, 심방과 예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18]

현대에 있어서 목회 상담은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욱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인간성이 파괴 되어 가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등에 의한 인간 소외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상처와 마음의 병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정시 질환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를 섬겨야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은혜로 치

---

[17] 오성춘, *목회상담학*, 377-97.

[18] Donald Capps, *Pasotral Counseling and Preaching*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0), 3.

유 받고, 주의 능력으로 해결 받아 전인적인 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목회자는 늘 목회 현장 속에서 상담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영육 간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설교 또한 현대 목회에 있어서 세속화되어 가는 교회의 대안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세속주의, 종교 다원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등이 그 세력을 더해하고 있는 21세기에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능력 있는 말씀, 확신 있는 말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특별히 포스트모니즘의 영향으로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고 오로지 상대적인 것을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시대에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만이 주께서 맡겨주신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교회들은 달라진 세대가 교회의 주역들이 되었고, 그 주역들의 눈과 귀는 과거의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시대의 것이 되었다. 이들은 높은 교육 수준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비록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극빈자로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중산층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또한 그렇게 희망하는 세대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성적이고 현실적인 설교자를 원한다. 신선하고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자 앞에서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지루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강단을 지키는 설교

자에게는 서슴없이 경멸의 눈길을 보낸다. 현 시대를 살아 가고 있는 성도들은 과거 지향적이고 틀에 박힌 설교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선한 설교자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목회에 있어서 설교는 그 유형과 내용 또한 예전과는 달라질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목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두 축인 목회상담과 설교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상호간의 만남을 요구받고 있다.

Capps는 목회 상담과 설교와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19]

첫째, 목회상담과 설교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목회 상담과 설교는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셋째, 목회에서 상담과 설교의 두 기능은 나란히 진행될 수 있는가?

Capps는 상담과 설교와의 관계에 관한 위의 질문에 대해서 전문적, 신학적, 방법론, 문학적인 근본 쟁점들을 오늘날 풀어야 할 급박한 문제라고 말했다.[20] 이처럼 목회 상담과 설교와의 관계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회 상담과 설교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먼저 살펴 보고, 이후에 둘 사이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19] Capps, *Pasotral Counseling and Preaching*, 3.
[20] Capps, *Pasotral Counseling and Preaching*, 5.

2. 목회 상담과 설교의 비교

현대 목회에 있어서 목회 상담과 설교가 가장 중요한 두 축임에도 불구하고 에드가 잭슨이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설교와 상담 기능을 조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21]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선 목회 상담과 설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 상담과 설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두 사역 사이의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a. 구조적 이해

목회 상담과 설교에 있어서 몇 가지 점들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청취의 구조이다. 상담은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문제를 듣고 끄집어내고 듣는다면 설교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청중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두 번째로 진단적 측면에서의 구조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상담은 내담자의 말을 통해서 내담자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제시하는 반면, 설교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심방을 통해 얻는 정보를 가지고, 목회자 스스로 교인들의 상황을 진단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서재와 기도와 각종 신학적인

---

[21] Capps, *Pasotral Counseling and Preaching*, 10.

서적들을 통하여, 성경 속에서 그 처방을 찾아 낸 후에 설교 시간에 청중들을 향한 진단 및 처방을 제시하게 된다. 세 번째로 대화적 구조가 있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주고 받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고 내담자에 대한 심리적 입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교는 일방적 대화로서 청중들은 설교자의 메시지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화의 제약을 갖는 독특성이 있다.[22] 네 번째로 상담은 일대일의 구조를 갖지만, 설교는 일대 다수의 구조를 가진다.

b. 차이점

상담과 설교의 차이점은 의사 소통의 방법 및 대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상담은 상호 대화적이며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이다. 설교는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자와 청중간의 대중적 사역이며 대중의 공통적인 문제를 기초로 하여 대중을 염두에 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반면 목회 상담은 지극히 개인적 정황을 기초로 하여 개인을 향한 언어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럼으로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반면, 설교는 각각의 개인에게 일일이 초점을 맞울 수는

---

[22] 이충호, *"21세기 강단 위기의 대안으로서 상담설교에 관한 연구"* (M.Div. diss.,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2003), 49-50.

없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적으로 가진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언급과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접촉점에 있어서도 설교는 말씀과 교리에 의존하면서 접촉을 시도한다면 상담은 심리적 이론을 접촉점으로 활용한다. Donald Capps는 “설교는 말씀과 교리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상담은 말씀과 교리에 심리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수용해야만 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말하고 있다.[23]

셋째, 시간과 공간적 차이이다. 설교가 일정한 장소에서 약속되어진 시간에 이루어지는 공적이고, 집단적이고, 전통적인 선언의 의미를 갖는다면, 상담은 보다 개인적이며, 사적이고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장소와 시간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24]

넷째, 목표점에 있어서도 그 차이를 보이는데, 목회 상담은 정동적 변화와 행동적 변화를 우선적인 치유의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인지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설교 사역은 주로 인지 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심층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25]

마지막으로 방향성에 있어서 설교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결단을 요구한다면, 상담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인간의 다양한 문

---

[23] Capps, *Pasotral Counseling and Preaching*, 3.
[24] 윌리엄 윌리몬, *통합적 설교자로서의 목회자*, 차호원 역 (서울: 소망사, 1985), 55.
[25] 심상권, “설교와 목회상담,” *그 말씀* (11월호 1994): 162.

제들에 대한 제시와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할 수 있다.[26]

c. 공통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회 상담과 설교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Capps는 목회 상담과 설교의 관계에서 간과되어 온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목회 상담과 설교 사역의 공통점을 살펴봄으로써, 목회 상담과 설교 사역 사이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통의 목표

목회 상담과 설교는 성도들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공통된 목적이 있다. 목회 상담과 설교가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지만, 목적에 있어서는 공통의 신학적 이해를 반영하며 하나의 통합된 사역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이다.

Lawrence Crabb은 상담의 목표를 '성숙'이라고 말한다. 그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과 같이 되도록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봉사하는 진정한

---

[26] 특히, 이 차이점은 상담설교에 관한 정당성과 신학적 논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즉 설교가 위로부터 내려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반하여, 상담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상담설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의한 말씀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자유인이 되도록 권면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자의 책임이며 목적이다[27]"고 하였다. 게리 콜린스는 특별히 일반 상담학자들이 상담이 목표로 정하고 있는 '자아실현'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닮기[28]'라는 개념으로 바꾸었다. 즉 성도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도가 가진 최고의 잠재력을 계발하므로 그들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라고 강조[29]하는 것이다. 또한 하워드 클레너블은 "목회와 상담의 목표는 자기, 이웃, 사회의 정체성 계발[30]"이라고 말하였고, 게리 걸브랜슨은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목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하는 것[31]"이라고 정의했다.

이상을 정리하면 상담의 목표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체성을 찾고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치료하고 돕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설교의 목표는 무엇일까? 제이 아담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개별적으로 세우고 하나의 몸으로 세우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있다[32]"고 하였다. 마틴 로이든 존스는 설교란 전인을 다루는 것으로 설교자의 임무는 회중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설교는 단순히 지식이나

---

[27]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23.

[28] In Ephesians 4:13, "Until we all attain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to mature manhood,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ESV)

[29] 게리 콜린스, *크리스천 카운슬링*, 피현의, 이혜련 역 (서울: 두란노, 1985), 17.

[30] 클레너블, *목회상담신론*, 57.

[31] 게리 걸블랜슨, *목회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진우 역 (서울: 횃불, 1994), 59.

[32] 제이 아담스, *설교의 시급한 과제*, 이길상 역 (서울: 아가페, 1996), 25.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신 의식,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회중들의 마음에 진리의 충격을 주어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33]

또한 김덕수는 설교의 목표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를 위해서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 외에,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세상과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34]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설교의 목표 또한 하나님이 백성으로서의 변화이다. 설교를 통한 이 변화는 전인적인 것인데, 이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목회상담의 목표나 설교의 목표는 동일하다.

2) 상담과 설교의 원천인 성경의 중요성

설교가 성경을 기초로 하여 철학, 인문 사회학을 이용하여 청중에게 다가간다면 목회 상담도 역시 심리학적인 도움을 받지만 성경을 문제 해결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성경 사용에 있어서 제이 아담스는 “성령은 상담자가 성경을 사용하길 바란다”며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5] 그리고 상담에 있어서

---

[33] 정근두, *로이드존스의 설교론* (서울: 여수룬, 1994), 53.
[34] 김덕수,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 (서울: 쿰란출판사, 2005), 25-40.
[35] 제이 아담스, *복음주의 목회상담*, 전동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3), 99.

성경의 중요성을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36] 첫째, 성경은 상담의 동기를 부여한다. 둘째, 성경이 상담의 전제를 수립해 주는 바탕이 된다. 셋째, 성경이야말로 상담의 목표와 목적을 정확히 제시해 준다. 넷째, 성경은 상담의 실제와 원리를 조직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역할을 지니므로 중요한 것이다.

제이 아담스뿐 아니라 크랩 또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 나름의 네 가지[37]를 제시하였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우리가 확신을 갖고 성경에 의존하는 것은 성경의 명료성 때문이다. 셋째, 성경은 죄로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넷째, 정직하고 겸손히 배우겠다는 자세로 성경에 접근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다고 약속하였다.

이와 같이 성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동일하다. 그러나 성경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38]

첫째, 성경 사용에 대한 강성적 보수주의 견해를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제이 아담스이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이 상담의 동기에서부터 실재 적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 보수주의 입장

---

[36] Jay E. Adams, *The Use of Scriptures in Counseling* (Grand Rapid: Baker Books House Co, 1975), 4.
[37]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41-42.
[38] 오성춘, *목회 상담학*, 109-21.

에 서 있는 Seword Hiltner, Wayne E. Oates, Carral A. Wise 등이 있다. 이들은 목회 상담의 자원으로 성경을 논하고 성경의 사용이 목회 상담에 중요한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셋째, 중도적 입장은 Gary Collins, Donald Capps, Lawrence Crabb, Bruce Narramore 등이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도 성경적 상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성경적 상담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이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사용하기 보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이든지, 그 말씀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이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소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목회 상담에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세 가지 입장 중 급진적 보수주의의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성경 외에 모든 것을 배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적인 자원을 내팽개치게 된다. 또한 성경 말씀의 사용이 문자주의로 흘러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도적 입장의 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이 계발한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그 이론에 내담자의 정신건강, 인간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목회 상담이라는 착각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본다. 성경은 그저 보조 수단에 불과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목회상담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상담과 설교의 구조적 과정

목회 상담과 설교의 두 번째 공통점은 구조적 과정[39]이다. 내담자 혹은 청중이 되는 성도의 문제를 확인하고 탐색하여 진단하고 해석하며 목회자로서 개입하여 다루는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구조가 동일한 것이다. 목회 상담의 1 단계는 상담요청 동기 확인 단계이다. 즉 내담자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상담을 요청했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 2 단계는 문제 원인 파악 단계이다. 문제의 다양한 원인과 영향 및 그 문제의 맥락을 발견하기 위해 탐색하는 것이다. 3 단계는 진단적 해석의 단계이다. 다시 말해, 상담자가 이해하는 측면을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내담자와 상의함으로 진단적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4 단계는 전략수립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파악한 해석에 기초하여 목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에 있어서도 1 단계는 청중의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서론을 작성할 때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선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 2 단계는 이 문제의 맥락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3 단계는 성경구절이나 성경에 암시된 내용에서 도움을 얻어 그 문제를 해석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목회자의 개입 단계로 진단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처럼 목회 상담과 설교는

---

[39] Capps, *Pasotral Counseling and Preaching*, 44-46.

어떤 한 문제를 확인하고 탐색하고 해석해 해결하기까지 동일한 구조적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4) 기타 공통점

상담의 기초는 경청에 있다. 반면 설교는 형식상 '일방적인 말하기'로 되어 있으나 좀 더 생각하면 설교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설교자는 말하기 전에 청중의 소리를 미리 듣고 그 설교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중의 필요와 함께 경청을 위해서는 교인들의 삶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고뇌와 마음의 간구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40] 즉 공감적 분위기 속에서 설교를 이끌어 가는 것,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결단하는 상호성이야말로 설교자의 경청이라는 의미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목회 상담과 설교는 모두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도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설교는 훌륭한 설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담도 역시 훌륭한 상담이라고 여길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설교가 성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중들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

[40] 헤롤드 브리라이슨, 제임스 타일러, *청중의 필요를 채우는 설교 작성법*, 정성영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51.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 선포하는 방식으로만 취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신약 성경의 대분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은 당시의 청중의 상황에 대한 답으로서 바울이 편지의 형식을 빌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당시 청중들의 문제와 필요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목회 상담과 설교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목회 상담과 설교는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지하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점 또한 중요한 공통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회 상담과 설교 역시 모두 인간의 사고 및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궁극적인 원동력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점은 두 사역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3. 상담과 설교의 통합

목회 상담과 설교 사역 사이의 여러 가지 차이를 극복하고 상담과 설교의 두 사역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어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1961년부터 목회 상담과 설교학의 통합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노력에 대해 설교학적 견지에서는 설교의 순수성을 파손하는 일, 설교의 본질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일이라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목회 상담학적 견지에서는 어떻게 일방적인 전달 방식의 설교가 양방적 의사 소통

을 전제로 하는 상담일 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두 영역의 협력적 시도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41]

목회 상담과 설교를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Thomas C. Oden은 "이 두 사역 사이는 표면상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유사성이 숨어 있으며 하나의 목회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 없이 체험될 수 있다[42]"고 개진하였다. 이것은 목회 상담과 설교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역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회 상담과 설교의 사역을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개념이 바로 '상담 설교'라고 할 수 있다.

설교는 선포(일방적 말하는 것)이고, 상담은 경청(듣는 것)으로 대표된다.[43] 분명 상담은 듣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들음으로써 문제를 파악한다. 그러나 내담자의 치유의 근본으로서의 복음적 메시지가 필요하고, 이 복음적 메시지가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드러난 '사랑과 은혜의 묘약'이 필요하다. 종국에 가서는 상담자 역시 설교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상담 설교란 듣는 과정을 목회와 심방에서 감당하고 상담에서의 '지도'와 '교육'의 부분을 설교화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

[41] 진요섭, "목회상담과 설교의 통합 가능성(1)," *가정과 상담* (11월호 2001): 41.

[42] Thomas C. Oden, *Kerygma and Counseling : toward a covenant ontology for secular psychotheraph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8), 22.

[43] 김한성, *상담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28.

있겠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상담 설교에서는 듣는 과정을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들로 제기하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설교에서 제시되는 문제의 내용으로 몰입하게 한다. 그리고 그 후에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 치료해 나가는 상담의 과정을 이루는 것[44]"이라고 말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상담설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C. 상담 설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1. 상담 설교의 정의

기본적으로 상담 설교란 상담과 설교라는 서로 다른 두 개념이 합쳐져서 '상담 설교'라는 합성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담 설교란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가? 설교를 목적으로 하는가? 이 두 개념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이 같은 질문은 그 만큼 상담 설교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 설교'라는 명칭을 한국에서 최초로 제안한 김만풍 목사는 상담 설교를

---

[44] 김한성, *상담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92.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상담 설교란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는 회중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상처를 회복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역기능과 부적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이다.[45]

김만풍은 상담 설교의 기본적 개념을 세 가지로 이야기 했는데 첫째, 상담 설교는 여러 형태의 설교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 분명히 상담 설교도 다른 설교와 다를 바 없는 설교이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설교와 마찬가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상담 설교는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이다. 상담 설교는 회중의 삶의 현장에서 상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상담 설교는 상담을 내용으로 하는 설교이다. 회중 개개인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의심, 염려, 불안, 좌절, 실패, 외로움, 우울, 갈등, 위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영육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예방과 치료 차원에서 전달하는 것이다.[46]

또한 제럴드 케네디는 상담 설교에 대해서 "실의에 빠진 자를 회복시켜주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확신을 심어주며, 신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선포해 주는

---

[45] 김만풍, *상담설교* (서울: 크리스챤서적, 1995), 20.

[46] 김만풍, *상담설교,* 19-20.

것"이라고 정의했다.[47] 송길원은 "교인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담의 내용들을 '상황'으로 설정하고 상담적 접근으로 말씀을 나누어주고 그 말씀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48]"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오성춘은 "상처 입은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 눌린 자들, 슬픔에 잠긴 자들로 하여금 그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인격으로 회복시키고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49]"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상담 설교는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이며 또한 상담을 내용으로 하는 설교이다.

성도가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후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담 설교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들을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50]

이처럼 상담 설교는 이러한 치유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응(confront)해야 할지를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설교, 즉 삶의 예방적 차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직 특별한 문제나 위기, 고민 등에는 당면하지 않았지만, 성도들의 삶 속에서

---

47 제럴드 케네디, *설교의 이론과 실제*, 백리언 역 (서울: 대한기독서회, 1980), 185.

48 송길원, "상담설교의 필요성," 114.

49 오성춘, "치유와 상담설교," *그말씀* (11월호 1994): 148-49.

50 김한성, *상담설교의 목회적 실용성에 관한 연구(3)*, *가정과 상담* (10월호 2001): 20.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문제들과 그 해결, 대처 방법을 미리 설교를 통해 선포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방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게리 콜린스는 예방 상담의 목표에 대하여 세 가지 차원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내담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1 차적 예방이고, 내담자의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문제를 극복하거나 문제를 막으려는 것이 2 차적 예방이고, 내담자가 문제의 영향을 스스로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는 것이 3 차적 예방[51]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의 예방적 효과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상담 설교이다.

2. 상담 설교의 역사

한국에서 상담 설교에 대한 명칭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김만풍 목사이다. 그는 1989년 남서울교회에서 부목사로 부임하여 사역하던 중 담임 목회자의 안식년 동안 직무를 대행하면서 설교를 담당할 때 상담 설교라는 이름 하에 고난, 외로움, 서원, 저주, 불안, 분노, 의심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그 후 1991년 8월 합동 신학교 목회 신학 연구원 제 15차 세미나에서 '상담 설교 연구'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었고, 그해 '상담 설교'라는 과목을 개설해 강의하기에 이르렀다. 1993년에

---

[51] 게리 콜린스, *훌륭한 상담가*,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57-58.

는 목회와 신학에 '전인 치유에 있어서 목회 상담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상담 설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1994년 11월에는 두란노서원에서 간행된 『그말씀』에서는 "상담 설교론"을 특집으로 다루기에 이르렀고 여기에 "상담 설교의 주제선정과 내용 구성"이란 제목의 글을 실었다.[52] 이것을 시작으로 상담 설교라는 명칭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상담 설교의 등장이 생경한 일이었지만 이미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비록 상담 설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형태의 설교가 발전되어 있었다. 미국은 1900년대부터 다양한 명칭으로 상담 설교가 불려졌다. 1926년에는 Henry Sloan Coffin의 저서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에서 '목회적 설교(Pastoral Preaching)'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1944년 Halford E. Luccock는 「목사의 설교 준비실에서」에서 '삶의 상황 설교(Life-Situation Preaching)'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1951년에는 Wayne E. Oates는 「기독교 목회자」에서 '치료적인 설교(Therapeutic Preaching)'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뒤로 Charles F. Kemp가 1956년에 '삶의 상황 설교(Life-Situation Preaching)'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하였다.[53]

미국의 경우 상담 설교의 발전에 대표적인 인물은 Harry Emerson Fosdick이

---

[52] 김만풍, *상담설교,* 32-33.

[53] 김만풍, *상담설교,* 27-28.

다.[54] 그는 강해 설교나 주제 설교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기획적 방법(Planning Method)’ 또는 ‘상담 설교(Counseling Preaching)’라고 불리는 좀 더 효과적인 설교 방법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였다.[55] Fosdick의 설교는 1930년 10월 5일부터 1946년 5월까지 거의 16년 동안 당시 미국 인구의 절반인 1억 청중들을 사로잡았던 명 설교였다. 그의 설교는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설교였고,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주는 설교였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말씀에서부터 왔지만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의 삶에 관한 이야기였다. 수없이 많은 삶들이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를 찾아가지 않고도 Fosdick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치유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뉴욕을 방문하는 모든 미국인 관광객들의 최우선 순위가 그의 설교하는 리버사이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다고 여론 조사는 보도하고 있다.[56]

웨인 오우츠 역시 상담 설교의 발전에 기여한 학자이다. 그는 1951년도에 그의 저서 『기독교 목회자』 제 8장 ‘설교와 목회 상담’에서 설교를 통한 목회 상담 사역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 하고 그 방향을 폭넓게 제시하였다. 그는 설교와 목회 상담은 서로 관련된 사역으로써 목회 상담은 설교에 영감을 주는 자원이 되

---

[54] Harry Emerson Fosdick, *A Faith For Tough Time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2), 9.
[55] Capps, *Pasotral Counseling and Preaching*, 16.
[56] 정태기, “상담설교의 가능성과 전망,” *그말씀* (11월호 1994): 134.

며 설교는 목회상담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57] 그는 상담 설교를 활용하되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룰 경우에는 설교보다 강의나 공개토론 혹은 전문가들을 청하여 그룹으로 진행하는 패널토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설교시 예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면 허락을 받고 나서 미리 준비할 것이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내용을 인용할 것을 당부했다. 설교나 강의, 공개토론, 패널토의 등을 통해서 문제들을 다루고 개인 상담을 통해서 그 반응과 결과들을 확인한다면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되리라는 점을 지적했다.[58]

이처럼 상담 설교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목회자들에 의해서 존재하여 온 것이다. 목회 현장 가운데서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말씀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을 해석해서 적용시켜 주는 것은 이미 목회자들의 현장에서 늘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Harry Emerson Fosdick의 영향력은 설교에 심리학을 이용하는데 탁월했다.[59] 그러나 그의 'Preaching as Counseling'는 성경 본문에 대한 설교보다는 청중의 감정을 호소하는데 집중하였다. 그의 설교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데 충분한 공감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점진적 연구와 깊은 관심을 통하여 그 중요성이 점점 더인식되어 가고 있고, 형태

---

57 김만풍, *상담설교*, 28.

58 김만풍, *상담설교*, 30-31.

59 Edmund Holt Linn, *Preaching as counseling; the unique method of Harry Emerson Fosdick* (Philadelphia: Judson Press, 1966), 159.

와 내용 그리고 구성상 상담 설교들이 많이 등장하는 추세이다.[60] 목회현장에서 성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주목하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과 목회 상담학을 전공한 실천 신학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다.

3. 상담 설교의 성경적 근거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상담 설교의 유형으로는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셨던 사건들이나 말씀 선포 속에서 그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김만풍은 성경적 배경을 논하면서 상담 설교의 역사를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인류 최초의 상담 설교는 에덴동산에 있었다. 상담 설교자는

---

[60] 상담설교 단행본 : 이동원, *이렇게 밤을 지나라* (서울: 나침반사, 1989),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서울: 나침반사, 1992), *회개행전* (서울: 규장, 2000), 홍정길, *중년의 위기* (서울: 크리스챤서적, 1993),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서울: 크리스챤서적, 1994), 옥한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서울: 나침반사, 1983),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서울: 두란노서원, 1987), *시험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서울: 두란노서원, 1989), *나의 고통 누구 탓인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김만풍, *상담설교* (서울: 크리사찬서적, 1995), 류영모, *치유가 있는 교회* (서울: 나침반, 2000), 김경수, *치유설교* (서울: 예루살렘, 2004), 강준민, *관계의 법칙* (서울: 두란노서원, 2005), 소강석,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없다* (서울: 나침반, 2005) 등이 있다.

하나님이고 회중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였고, 장소는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숨었던 곳이었다."[61] 고 말한다. 또한 김한성이 말하는 목회 상담학적 입장에 본 창세기 3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2]

목회상담학적 만남(접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이루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기 문제 노출원인분석과 문제 진단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문제 직면	1. 아담이 책임전가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 죄책감을 경감시키려함.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2. 하와에게 직면하심과 하와의 책임회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느냐?"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3.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 과정을 다 아시면서도 일일이 물어 보신 것은 문제 상황에 처하여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죄책감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스스로의 책임을 인식하고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여 해결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해결책 제시	1. 뱀에게 :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네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2. 하와에게 :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3. 아담에게 :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

[61] 김만풍, *상담설교*, 38.

[62] 김한성, *상담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40.

	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4. 최종 해결책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리 우기 위하여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 함)을 지어 입히셨다. 2)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그들의 모든 후손들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을 제시해 주셨다.

<표 II. 1> 목회상담학적으로 분석한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63]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 하였을 때에도, 그냥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현장에 찾아 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64] 이것이 목회 상담의 근원이 되었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과 그에 관한 말씀의 선포는 곧 상담 설교의 근원이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 우신 상담자이신 동시에 상담 설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야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의 ‘임마누엘(사 7:14)’로 ‘놀라우시다’라는 의미의 ‘기묘자(Wonderful)’로 ‘상담자’라는 의미의 ‘모사(Counselor)’로 소개

[63] John F. Walvoord and Roy B. Zuck, *Genesis,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Wheaton Illinois: Victor Books, 1983), 34.
[64] Kenneth A. Mathews, *Genesis 1-11:26,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ume 1A* (Nashville: Brodaman & Holman Publishers, 1996), 255

하고 있다.[6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빌 2:6-8),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요 1:14),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요 1:9),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요 1:14),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고 (히 9:15), 우리의 큰 목자가 되셔서 (히 13:20),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히 11:6),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 4:16)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상담자(Wonderful Counselor)'이시다.[66]

Michael Green은 South Africa의 성 바울 신학대학의 학장인 던캔 부케넌의 책 「예수님은 어떻게 상담하셨을까?」의 편집자 서문에서 "예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접근하셨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을 드러내셨으며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67] 이처럼 예수님의 상담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상담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중에 하나인 것이다.

---

[65] 김만풍, *상담설교*, 40.

[66] 김만풍, *상담설교*, 40-41.

[67] 던캔 부케넌, *예수님은 어떻게 상담하셨을까?*, 천장웅 역 (서울: 아카페, 1997), 편집자 서문.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요 3:1-15; 7:50-51; 19:39-41),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와 갈등을 근본적으로 풀어 주셨으며 (요 4:4-42), 간음 중에 잡혀 온 여자의 위기를 해결해 주셨고 (요 8:1-11), 세리장으로 심적 갈등을 안고 있던 삭개오를 만나 구원해 주셨으며 (눅 19:1-10), 시험에 빠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눅 22:31-34; 45-46, 54-62; 요 21:1-23).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회중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을 익히 알고 계셨다. 그들이 처한 영적, 정신적, 육신적 형편을 잘 이해하셨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셨다. 그리고 민감하게 기회를 포착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법은 복음서의 다양한 장면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68]

심방	막 1:29-31; 눅 8:51-58; 10:38-42; 19:1-10
친교	마 9:9-13; 눅 14:1-24
논쟁	마 12:1-22; 눅 20:27-40
책망	마 11:20-30; 눅 11:27-52
권면	눅 12:1-59
가르침	눅 15:1-17:10; 20:1-26
이적	마 4:23-25; 막 5:1-43; 눅 5:12-16; 18:35-43; 요 9:1-41
설교	마 5:1-7:27; 13:3-52; 21:23-25:46; 요 13:12-16:16

<표 II. 2> 김만풍이 제시한 예수님의 상담 사역 예시

[68] 김만풍, *상담설교*, 41.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소위 상담의 접근 방법으로 병자들에게 다가가심을 보게 된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인간에게 제시해 주심으로 학자들은 그 방법을 상담의 중요한 원칙으로 발견, 적용하였다. 그 예가 마가복음 6장 34절 내용이다.[69]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
내담자	큰 무리
목회상담적 접근	무리를 보시고 나오사
상담적 진단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파악하심
감정이입	불쌍히 여기사
상담설교적 차원으로서의 문제해결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표 II. 3> 상담적 접근 방법에 따른 막 6:34 분석

이렇듯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들을 향한 회복과 치유의 말씀 선포는 목회상담뿐만 아니라, 상담설교가 단순히 학자들이 고안해 낸 산물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보낸 회람서신에서 이러한 상담 설교의 틀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각 교회마다 서신서를 읽어가면서 설교의 효과 뿐 아니라 치유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바울 등이 교회들

[69] 김한성, *상담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42-43.

에게 보낸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교회에 속한 양무리들을 위한 양육지침이고 편지들이었다.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에 드러나는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갈등, 에베소서는 부부와 부모자녀, 노사관계,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에 관한 권면과 위로 등 상담분야의 주제들이 섬세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회중의 귀에 들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상담 설교가 되어 성도들의 일상 생활에서 만나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상처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며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다.[70]

이와 같이 상담 설교의 성경적 배경을 통하여 상담 설교가 제한된 설교의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폭넓게 그 의미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담 설교가 갖는 의미를 더욱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상담 설교의 필요성

현대인은 왜 상담적 설교를 원하는가? 현대는 산업의 발달로 풍성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럴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욱 여유가 없어지고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정태기 교수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재산도 잃고 친구까지 잃어버린 상태에서 외

---

[70] 김만풍, *상담설교*, 44.

로움의 상처를 앓고 있는 상황에 비유하였다. 그러면서 '무엇이 현대인들을 이렇게 병들게 하는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71]

첫째, 현대인들의 상처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한다. 현대의 도시화된 산업 사회에서 사는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물질, 권력, 명예가 자리 잡고 있다. 위기를 맞아 병들어 있는 인간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 한가운데서 상처를 일으키는 우상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대인의 상처는 참 만남의 상실에서 온다. 인간에게는 타고난 관계의 의지(Will-Go-Related)가 있어서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 병이 들게 된다. 현대의 산업사회는 인간의 유대관계가 흐트러지게 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훈훈한 인간의 정이 넘치는 농촌사회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도시로 모이게 되었는데, 도시는 농촌처럼 함께 오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수시로 이동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 사이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셋째, 현대인의 상처는 병든 사회구조에서 발생한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치, 경제, 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치가 병들고 경제가 병들었을 때 그 여파는 전 국민에게 미치게 된다. 특히 교육제도가 병들어 교육을 받고 자라야 하는 모든 국민이 심각한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 오늘의 입시 교육은 인격을 키워주는 교육이라기 보다는 인격에 상처를 주는 교육이다.

---

[71] 정태기, *상담설교의 가능성과 전망* (서울: 두란노, 1996), 157-60.

끝으로, 현대인을 상처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이다. 인간은 생명의 힘을 제공해주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흙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 지구 온난화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삶조차 위협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교회는 이러한 현대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한다. 이처럼 누구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는 회중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상담 설교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회중들을 단지 공 예배 가운데 참여한 참석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곧 현장 속에서 상처를 입고 안식처로 돌아온 개인들로 바라보아야한다. 그리고 예배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성도들의 심층적인 삶 속 깊이까지 연구하고 탐색하여 치유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교리를 선포하고,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가 아닌, 말씀이 실제적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되어지도록 권면하는 상담 기술을 설교에 접목하여 시행하는 상담 설교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 목회에서의 설교 사역은 설교자들이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러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한 상처와 정신적인 질환 등의 장애물과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상담 설교가 요구된다.

5. 상담 설교의 특징

일반적인 설교와 분명히 구분되는 상담설교는 그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상담적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여전히 설교가 가져야 하는 요소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담 설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 담설교는 성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연관 지어 주어야 한다. 상담설교에서는 이미 성도들에 대한 개인적 이해와 그들의 생활 무대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사항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 효과적인 설교는 성도들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언급할 줄 아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72] 이처럼 상담 설교는 성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는 설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Edmund Linn은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상담 설교를 하려면 성도들의 강점과 약점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미리 찾아내지 못하고 강단에 서는 설교자는 효과적인 상담 설교를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73] 성도의 상황과 문제와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

---

[72] Capps,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18-20. Donald Capps는 Edmund Linn이 말하는 상담설교의 특징을 7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다. 그중 세 번째로 말하는 특징인 것이다.

[73] Capps, *Pastoral and Counseling and Preaching*, 19. Edmund Linn이 말하는 7번째 특징이다.

악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의 삶에 적용하여 그들의 필요와 삶 속에 필요한 성경적 지침을 구체적으로 채워 주어야 하는 것이다.[74]

둘째, 상담 설교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적용시켜야 한다. 일반적인 설교가 그러하듯이 상담 설교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복음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성경적인 인간이해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는 설교는 복음 선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복음은 설교의 명백한 기초가 되는데 상담 설교에서도 역시 이 메시지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상담설교는 단순히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동정을 표시하는 것에서 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능력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은혜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포와 상담은 서로에게 유익한 도움을 준다.[75] 동일한 내용을 상담에서는 일방적 선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듣게 되는 것이다.

셋째, 상담 설교란 기존 방법의 가치를 활용해야 한다.[76] 특히 상담 설교는 설교의 형식에 상담의 기술을 조화시켜서 하는 설교이다. 상담의 기본적인 기술은 상담자가 내담자로 더불어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실

---

[74] 김만풍, *상담설교*, 22.

[75] 김만풍, *상담설교*, 22.

[76] Capps,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19. Edmund Linn이 말하는 6 번째 특징이다.

제 상황에 적용하여 어려움을 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먼저 내담자가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는지(Where they were and are)를 알아본 후, 현재 형편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목표(Where to go)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구체적인 방법(How to go)를 찾아, 그 해결 방법을 실제의 문제 상황에 적용하도록 격려하는(Encourage to apply)것이 상담인데 이러한 기술을 설교에 도입하는 것이 상담 설교이다.[77] 이처럼 성도들의 심층적 삶 속 깊이까지 연구하고 탐색하며 치유를 시도하는 목회상담은 설교 분야에 '질문(Questioning)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78]

넷째, 상담 설교는 심리학의 건건한 제안들을 활용한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과 그리고 일반 계시인 심리학의 주인은 모두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심스럽게 심리학의 이론과 제안들을 분별해서 활용하되, 일반 계시에서 찾아낸 원리와 이론을 특별 계시에서 발견한 진리의 빛에 비추어 확인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상담 설교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성령의 은혜와 조명하심을 경험하게 된다.[79]

끝으로, 상담 설교를 할 때는 개인에게 이야기 하는듯한 성격을 가지고 하며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공평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80] 개인 상담과 같이 상담 설교 역시 특별한 문제들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설교자는 매 설교마다 모든

---

[77] 김만풍, *상담설교*, 22

[78] 심상권, *설교와 목회상담*, 163.

[79] 김만풍, *상담설교*, 22-25.

[80] Capps,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19-20. Edmund Linn이 말하는 2, 4 번째 특징이다.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 주려고 할 때보다 단 한 사람에게 말하려는 태도를 설교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요구를 더 잘 다루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상담 설교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먼저 상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 특히 복음의 내용 – 이 주제가 되고, 성도의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말씀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설교의 형식에 상담의 기술이 담기고 심리학의 건전한 제안까지도 활용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용하되, 개개인에게 그리고 공평하게 전달하는 설교이다. 그렇다면 상담 설교의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 보자.

6. 상담 설교의 목표

상담 설교는 설교라는 의미 속에서의 목표와 부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담이라는 측면에서 목표점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담 설교의 일차적 목표는 청중이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한 해답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81] 교회에 참석하는 청중의 심리를 보면, 자신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리학적인 대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

[81] 정태기, *"치유목회의 중요성과 설교를 통한 치유"*, 56.

말씀을 통한 해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82] 그 문제가 단순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든지, 슬픔에 대한 위로, 문제 해결에 위한 하늘의 지혜,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말씀의 지식, 갈등 해결을 위한 충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격려, 회개를 위한 권면 등 무엇이 되었든지 지금 이 땅 위에서 당장에 필요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되 모든 상담적 능력을 말씀 속에 녹여 내어 선포해야 하는 것[83]이 상담 설교의 목표점이다.

그러나 상담 설교의 목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제기된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전인 치료 즉, 제기되었던 문제로 인해 받았던 마음과 육신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더 심층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다. 치료의 기본 개념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문제 상황을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회복은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84] 더 나아가서 상담 설교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과 상처의 치유, 위기의 극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전인적인 성장을 격려한다. 즉 성도의 삶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모든 영역까지 발전적인 영향을 미쳐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85]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인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그

---

[82] 릭 웨렌, *설교분석 리포트*, 김의종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1999), 95.
[83] 김만풍, *상담설교*, 52.
[84] 김한성, *상담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43.
[85] 김만풍, *상담설교*, 53.

것은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얻어서 새 생명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고(롬 5:12-21; 엡 2:1-10)이 이 세상의 삶에서만 아니라 죽음 저편의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소망 가운데 확고히 서도록 도전하는 것이다.(롬 8:14-39) 또한 영혼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여 전인적으로 신의 성품에까지 참예하는 자가 되게 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게 하는 것이다.(벧후 1:4). 한마디로 상담설교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설교를 듣는 회중이 영적,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전인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는 것이다.[86]

그러므로 상담 설교는 언제든지 목회적 관심에 충실하며, 도덕적인 가르침보다는 통찰을 얻게 하며, 인격을 재구성하게 하며, 책임적인 인격자로 서게 하며 위로와 창조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살게 하려고 노력한다.[87] 그러나 그 설교의 중심이 치유 그 차제이거나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머문다고 하면 그것은 설교라고 하는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설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므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자 하는 깊은 관심을 가진 설교자라 할지

---

[86] 김만풍, *상담설교*, 53.

[87] 오성춘, *"치유와 상담설교"*, 149.

라도 먼저 그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그의 병을 고치시려고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오늘 그에게 와서 그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88]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상담 설교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 보자.

7. 상담 설교의 효과

한국 전체 교회의 75%가 200명 이하의 성도가 회집한다.[89] 이는 대부분의 교회가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목회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교만 하더라도 새벽기도회까지 하면 1주일에 10회 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의 목회 현장에서 상담 설교가 가져오는 유익은 다양하다.

첫째, 상담 목회 사역의 시간과 수고를 절약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90] 목회자가 개인 상담을 통해서만 성도를 도와준다면 한 사람을 상담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역에 지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상담 설교는 상담에서의 집단 상담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수고를 줄이

---

[88] 오성춘, *"치유와 상담설교"*, 148.
[89] 김한성, *상담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103.
[90] 김만풍, *상담설교*, 57.

면서도 상담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목회자와의 상담을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 설교는 설교의 현장에서 성도들의 문제에 대한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둘째, 내담자의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91] 상담 설교는 내담자의 편에서 개인 상담의 경우에 느낄 수 있는 사생활의 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얻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개인 상담을 통한 사생활의 노출로 인해 부담이 클 경우에는 교회는 떠나게 되거나, 교회 생활의 일선에서 숨어버리거나 관계가 어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상담 설교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셋째, 상담 설교는 전체 회중에게 상담사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92] 은혜롭고 효과적인 상담 설교는 회중으로 하여금 상담 사역의 필요성을 의식하게 하고 자기 자신이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 주고자 하는 사람을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교회 안에서 서로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히 10:24)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성도들 간에 은사를 따라 서로를 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간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주님의 몸 된

---

[91] 김만풍, *상담설교*, 57.

[92] 김만풍, *상담설교,* 58.

교회가 성령의 위로 가운데 든든히 서 갈 것이다.

지금까지 상담 설교의 목표와 효과를 살펴 보았다. 이제 이러한 상담 설교의 실제적 틀을 살펴보고, 상담 설교의 제한성을 비판하고자 한다.

D. 상담 설교의 적용 및 비판

1. 상담 설교를 위한 구조적 틀

상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상담 설교의 구조적 틀을 가져야 한다. 가장 먼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하고, 이 문제가 비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 속에서도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도 함께 겪는 문제임을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의 진리를 통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회복케 되는 전인 치유, 전인 성장, 전인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상담 설교의 대표적인 구조적 틀은 Donald Capps와 김만풍의 예가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상담 설교의 구조적 틀의 이론과 장, 단점을 살펴본 후,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구조적 틀로서 성경적 상담 이론에 기초한 상담설교의 구조적 틀 – Paul

Tripp's Tree Model for Counseling – 을 제시하고자 한다.

a. Donald Capps가 제시하는 구조적 틀

1) 1 단계 : 청중의 문제 확인

이 단계는 설교의 과정으로 보면 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노출하는 단계이다. 올바른 상담 설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중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그러한 문제의 제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에 상담 설교와 강해 설교 사이의 구분이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강해 설교는 그 설교의 주제를 단순히 성경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국한시킨다. 그러나 상담 설교의 핵심은 그 문제 제기의 시작이 청중들의 삶으로부터 라는 점이다. 청중들은 설교의 서두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지금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언급 될 때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처럼 청중의 문제를 확인해 서두에 언급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단계는 설교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중의 문제를 확인해 작성하는 서론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첫째, 간결할 것, 둘째 적절할 것, 셋째 흥미가 있을 것, 넷째 회중의 삶을 공감할 것 등이

다. 설교자가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면 청중의 마음 문은 열린다. 설교자가 성도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 줄 때 공감대 형성이 되고 마음 속에 응어리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다.[93]

Donald Capps가 제시하는 서론에서 다룰 수 있음을 강조하는 문제들은 오늘날의 여러 문제들(전쟁, 인플레이션, 마약 중독, 포르노 등)에만 국한 시키지 않고 상담의 주제들과 같이 개인적인 문제들(죽음, 이혼, 자녀 양육, 직업에 대한 의욕 상실 등), 그리고 강해 설교의 내용을 오늘날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 등 광범위한 주제들이다.[94]

2) 2단계 : 문제의 탐색

상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설교에서도 문제의 탐색의 과정은 맥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치 상담자가 문제를 다양한 측면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 문제가 내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순서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맥락을 발견하는 것이다. 흔히 이것은 길고도 복잡한 과정이다. 상담자는 매우 주의 깊게 내담자의 말을 경청해야 하며 내담자가 말하는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

93 Capps,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47.
94 Capps,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49.

주는 말만 해야 하는 것처럼, 설교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회중들로 하여금 문제를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95] 이 문제의 탐색은 성도들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들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 하는데 그 방법을 성경을 중심으로 전개하든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확대 해석하여 나가든지, 아니면 이 둘을 혼용하는 것이다.[96]

3) 3단계 : 진단적 해석

Donald Capps는 설교에서 진단적 해석의 단계는 탐색의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문제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므로 문제의 중심을 면면히 살피고 성경적,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의 문제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다.[97] 그는 진단적 해석에서 강조하는 바는 성경의 적극적 활용이다. 그 이유는 성경의 사용만이 진단과 해석에 권위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진단과 해석에 권위가 생기는 것은 그 설교의 논리나 설교자의 자신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 한다는 점에 있다”고 말한다.[98]

상담 설교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성경 본문을 떠난 설교를 행할 수 있기 때

---

[95] Capps,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47-48.
[96] Capps,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51-52.
[97] Capps,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59.
[98] Capps,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58.

문에 이 단계에 많은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다. 상담 설교가 빠지 쉬운 함정은 청중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작한 설교이므로 얼마든지 성경적 진리와 무관한 메시지와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문제 탐색의 단계에서는 성경을 사용할 수도, 청중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진단적 해석 단계에서는 성경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의한 바른 진단과 올바른 성경 해석이 진정한 설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99]

Donald Capps는 진단적 해석의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신학적 진단 유형을 여섯 가지로 제시한다.[100]

첫째, 숨겨진 개인의 동기를 확인시켜 주는 신학적 진단
둘째, 추정되는 원인들을 확인해 주는 신학적 진단
셋째, 부적절한 문제 형식을 가려내는 신학적 진단
넷째, 계발되지 않는 개인적 영적 요인들을 이끌어 내는 신학적 진단
다섯째, 문제를 명확하게 해주는 신학적 진단
여섯째, 공통된 인간 경험에 중점을 둔 신학적 진단

4) 4 단계 : 목회자 개입

목회자의 개입이란 설교 자체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을 넘어 회중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도록 몇 가지 방법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설교에서 나타

[99] Capps,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63.
[100] Capps,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113-50.

난 목회자의 권면은 모두가 진단적 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각 설교 마다 목회자의 개입은 막역한 일반적 언급이 아니라 진단에 의거한 독특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목회자의 개입 단계는 진단 단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101]

상담에서 이 단계에 이른 내담자는 상담자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으며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적 상황에서 어느 방법을 택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102]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 과정에서도 이 단계는 청중들로 하여금 반응하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상담 설교자는 여기서 회중들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이것은 청중을 향한 목회자의 적극적 개입을 의미한다. 상담 설교는 상담 상황에서처럼 내담자와의 대화적 분위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일방적인 선포적 분위기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인 목회자 개입이 필수적이다.

b. 김만풍이 제시하는 구조적 틀

Donald Capps는 일반 설교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제에 따른 원인 동기, 영적 요인 등을 상담의 형식을 따른 신학적 진단을 사용하는 반면, 김

---

[101] 김한성, *상담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54-55.
[102] Capps,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49.

만풍은 주로 상담의 주제들을 취급하여 설교하는 것을 상담 설교로 규정한 듯 보인다.

그는 상담 설교를 위해서는 4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둘째 왜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가?, 셋째 여기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넷째 어떻게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다.[103]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청중들의 삶을 관찰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의 원인들을 성경에서 예리하게 찾아내어 그들에게 섬세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성경 본문을 택하고 그 전후 문맥과 내용을 다 각도에서 파헤쳐 그 작업에서 얻어진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강해 설교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104]

김만풍은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얻어질 상담 설교의 구조를 3 가지로 구분하였다.

1) 여는 말씀

서론에서 언급되는 구체적인 삶의 사례는 신속한 반응을 가져다 준다. 또한 적당한 상담 설교의 제목들은 회중들이 주보를 보는 순간부터 그 효과를 발휘한

[103] 김만풍, "상담설교의 주제와 내용," *그말씀* (11월호 1994): 128.
[104] 김만풍, "상담설교의 주제와 내용," 128.

다. ‘여는 말씀’에서는 주제를 설명하고 제목을 제시한다. 서두에서부터 회중의 관심을 사로잡아 들을 귀와 관심을 준비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는 말씀은 간결하고 분명해야 효과적이다. 복잡하고 지루하면 설교 초반에 회중들의 관심을 잃고 만다.[105] 김만풍은 여는 말씀의 형태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그는 설교가 회중에게 잘 전달되도록 설교 이론의 서론 원리를 충실하게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현재 회중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곳 서론에서 다루어졌다.[106]

2) 원리의 제시와 적용

두 번째 단계는 여는 말씀에서 제시된 문제의 해결 원리가 무엇이며 이것을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다뤄주는 단계이다. 이러한 청중들의 필요를 채워 줄 성경 말씀을 분석해 문제 해결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제시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도전해야 한다. 이 부분이 상담 설교의 핵심 부분이다.[107]

김만풍은 이 부분에서 제시할 원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청중에게 보여 주시

---

105 김만풍, “상담설교의 주제와 내용,” 150.
106 김한성, *상담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57-60.
107 김한성, *상담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60.

는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하며 따라서 다른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 해석에 근거한 내용분석과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108] 그의 설교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때 여러 가지 성경적 견해를 열거한 후,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 같은 문제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어서 그 위험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경적 지침을 본문에서 제시하였는데 그 진행 방법이 상당히 강해 설교적이다.

3) 맺는 말씀

김만풍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앞서 제시한 원리들을 종합하여 회중에게 몇 마디로 권면하는 장을 마련한다. 청중이 구체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도전하거나 권면 혹은 축복하는 말로 설교를 끝맺음 하는 것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여기서 감동적인 예화를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도 있음을 제안한다.[109]

[108] 김만풍, *상담설교*, 81.
[109] 김만풍, *상담설교*, 112.

2. 상담 설교의 구성 실제

이제 위와 같은 구조적인 틀을 기초로 하여 상담 설교의 실제적인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a. 주제 선정

상담 설교를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설교의 주제를 선정하고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다. 상담 설교의 주제는 주로 생활 속에서 찾지만, 설교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설교자는 망각해서는 안된다. 물론 선택한 설교의 주제는 청중의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주제의 선정을 위해서는 청중의 필요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청중의 필요는 상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임, 행사, 심방 등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교자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등을 생각해야 한다.[110]

상담 설교의 주제를 선정하는 목회자의 동기들은 다양하다. 성경을 읽다가 목회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택할 수도 있다. 심방을

---

[110] 워런위어스비, *상상이 담긴 설교*, 이장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42.

하다가 교인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주제를 정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상담을 요청해 오는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다른 교인들의 형편을 추정하여 주제를 찾아 낼 수 있다. 또는 다른 설교자들의 직접적인 설교나 테이프, 방송 등을 듣고 문득 떠오르는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고, 상담 설교에 관한 글을 읽다가 발견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상담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아서 어떤 주제를 생각해 낼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주제를 택할 수도 있다.[111]

그러나 상담 설교는 성도들의 삶과 상처에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자칫 잘못하면 즉흥적으로 선정된 설익은 주제가 상처를 치유하기 보다는 그 상처를 건드려 더 안좋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동기에서 상담적 설교의 주제를 선정하든지 목회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원리들을 김만풍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112]

> 첫째, 성경 말씀이 해답을 제시하는 주제를 선정한다.
> 둘째, 회중의 필요에 대해 객관성이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 셋째,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제를 먼저 선정한다.
> 넷째, 가장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선정한다.
> 다섯째, 특정한 개인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없는 주제를 선정한다.
> 여섯째, 다양한 주제들을 균형 있게 선정한다.

---

[111] 김만풍, “상담설교의 주제와 내용,” 143

[112] 김만풍, *상담설교*, 67-71.

일곱째, 가능할 경우에는 연속적인 주제를 선정한다.
여덟째, 적절한 경우에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아홉째, 다른 분야의 설교들과 조화를 이루는 주제를 선정한다.
열번째, 다른 분야의 설교들과 균형 있게 배열한다.

b. 상담 설교의 다양한 주제들

구체적으로 상담 설교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김만풍이 제시한 상담 설교의 주제들

주제	내용	본문	주제	내용	본문
분노	가인의 분노	창 4:1-15	서원	야곱의 서원	창 28:10-22
	모세의 분노	출 32:7-20		입다의 서원	삿 11:29-40
	사울의 분노	삼상 18:1-16		한나의 서원	삼상 1:9-20
	요나의 분노	욘 4:1-11	실패	승리 후의 패배	수 7:1-9
	하나님의 분노	나 1:1-18		베드로의 실패극복	눅 5:1-10
	분노 감정 관리	엡 4:25-32	위기	오직 주만 바라봄	대하 20:1-13
고난	하갈의 고난	창 16:1-16		잠잠하라 고요하라	막 4:35-41
	요셉의 고난	창 40:9-23		사도 바울의 위기	행 27:9-26
	엘리야의 좌절	왕상 19:1-18	외로움	사도 바울의 외로움	딤후 4:6-18
	유다 백성의 낙심	느 4:1-11	불안	아삽의 불안	시 77:1-20
	가나안 어머니 시련	마 15:21-28	저주	발람과 발락의 저주	민 23:1-12
	타고난 고난	요 9:1-12		사울의 맹세	삼상 14:24-35
양보	이삭의 양보	창 26:12-25	죄책감	죄책감의 해결	시 32:1-6
용서	요셉의 용서	창 50:14-21	소망	비전을 이루려면	욥 22:21-30
	형제가 죄를 범함	눅 17:1-4		소망이 있사옴은	애 3:19-39
보호	기회와 준비	삼상 17:31-40	스트	모세의 탈진	민 11:10-15

변화	야곱의 변화	창 32:24-32	레스	주님의 스트레스 관리	눅 4:40-44

<표 II. 4> 김만풍이 제시한 상담 설교의 주제[113]

2) 유영권이 제시한 상담 설교의 주제들[114]

가정에 관한 설교, 이혼녀와 결혼 문제, 분노를 건전하게 처리하는 문제, 실패와 좌절, 성공 지향, 대인관계, 사랑, 진로문제, 재정, 성욕, 자녀 문제, 경제관, 열등감, 고부간의 갈등, 외도 문제, 완벽주의, 마약 중독, 알콜 중독, 수치심, 불안, 자녀 교육, 홀로된 아버지(외기러기 모임), 동성애에 관한 가치관, 노년 대처, 죽음 등을 설교해야 할 주제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상담설교가 가능한 성경 본문과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제목	성경 본문	제목	성경 본문
빈 것을 채우는 용기	눅 11:14-26	예상치 못한 가루와 기름	왕상 17:11-16
스냅샷 인생과 신앙	시 73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	고전 3:16-17
메뚜기 인생	민 13:32-14:3	백향목의 향기	아 1:16-17
우리가 노래할 이유	행 16:25-32	크리스마스의 아픔	마 1:18-25
잊혀진 동전의 한 면	스 9:21-28	약할 때 강함이라	고후 12:7-10
자아의 발견	막 8:36-37	야곱 우물에서의 만남	요 4:12-21
고독과 연합	창 1:28	실패를 넘어선 용기	삼하 12:10-14
역경의 비밀	왕하 6:1-7	겉사람과 속사람	고후 4:16-18
악을 선으로 이기는 법	롬 12:14-21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요 4:5-30
정욕을 극복하는 법	삼하 11:2-17	분노 극복	엡 4:5-30
게으름 극복	엡 5:16	탐욕 극복	눅 16:1-15

<표 II. 5> 상담 설교가 가능한 성경본문

113 김만풍, *상담설교*, 74-76.

114 유영권, "목회상담적 설교," *신학논총* (8월호 2001): 439-43.

3) 윌리엄 터너가 제시한 DSM-IV에 따른 상담 설교 주제들

주제	제목	본문
의존성에서 벗어남	혼자의 힘으로 서고 싶다	갈 4:1-20
위선에서 벗어남	나는 권태롭고 지쳐 있으며, 그 사실을 감추는데 싫증이 났다	막 10:17-22
교만에서 벗어남	우주의 주인이 된다는 건 고달픈 일이다	눅 18:9-14
분노에서 벗어남	분노에 휩싸이고 분노를 쏟아내는 데 지쳤다	눅 9:51-56
방향 없이 사는 데서 벗어남	사느냐 죽느냐, 나는 그 물음에 싫증이 난다	창 3:1-13
완전주의에서 벗어남	도와주십시오. 내 양심이 너무 과열되었습니다	마 23:23-24
수치심과 공허감에서 벗어남	난 언제나 실패만 해야 하나?	눅 18:9-14
의심에서 벗어남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요 13:21-30

<표 II. 6> DSM-IV에 따른 상담설교 주제들[115] (1)

윌리암 터너는 이런 자멸적 생활 방식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깊이 연구했다. 그리고 인격 장애나 그런 생활 형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빛에 비추어 생각했다. 웨인 오츠는 평가하기를 '윌리엄 터너는 정신적 질병과 건강 문제를 정신 병원의 영역에서 끌어내어 평교인의 일상 생활에 도입했다.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 복음의 좀 더 개인적인 의미와 교훈 안에서 그들을 세움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한다. 최근 미국에서 한 조사 보고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전문 상담자를 주위에 두고도 목사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를 경제적인 면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상처 입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전문 상담자의 도움을 넘어서

[115] 조주희, *"상담적 설교 방법론에 관한 연구"* (M.Div. diss.,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4), 42.

는 영적인 도움을 요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6]

4) 조주희가 제시한 DSM-IV에 따른 상담 설교의 주제들[117]

정신장애	주요 진단적 특징	설교제목	본문
치매, 섬망, 기억상실 장애 및 기타 인지장애	인지 능력의 결손과 기억력 장애 언어 습득과 학습능력감퇴로 노년기에 발생	고장난 기억장치와 망각의 은총	신 32:6-7 겔 29:16 히 8:12
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	낮은 지능지수와 학습장애 의사소통 장애와 언어표현성 장애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그 지혜와 키가 가라가며 모범생과 반항아는 타고났는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눅 2:52 삿 13:24 고전 13:11
물질관련 장애	자기 고립과 심리적 불안(우울) 사고력과 판단력 장애 금단현상	알코올은 나의 목자시니.. 흡연과 약물로부터의 구원	창 9;24 시 23 롬 6:13
정신분열병과 기타 정신증적 장애	현실 검증 능력과 자아경계상실 망상 및 환각, 와해된 언어 귀신들림과 유사	정신분열증세와 귀신들림 뷰티풀 마인드	막 5:1-20 시 51:10-17
기분장애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집중력 감소, 우유부단함 부적절한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생각	자기 안의 분노를 처리 감정의 파도타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엡 4:26 고후 6:10 빌 4:4

<표 II. 7> DSM-IV에 따른 상담 설교 주제들 (2)

정신장애	주요 진단적 특징	설교제목	본문
불안장애	숨 가쁜 느낌과 전율 비합리적 두려움 강박적 사고와 행동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시 42:5

---

[116] 조주희, *"상담적 설교 방법론에 관한 연구"*, 43.

[117] 조주희, *"상담적 설교 방법론에 관한 연구"*, 44-45.

신체형 장애	신체의 특정부위에 알수 없는 통증 신경쇠약 및 감정표현 불능 화병(한국문화 특유의 질병)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	잠 17:22
해리성 장애	일상생활에서 딴 생각 다중 인격적 특성: 정체감혼란 몽환상태: 비현실감	현실 속의 나와 기억 속의 나	롬 6:6
성경장애 및 성정체감 장애	성 도착적 증세 성적 피학 및 가학 현상 성기능 부전 및 동성애적 증상	아름다운 성과 타락한 성	창 6:2-3 엡 5:31
섭식 장애	신경성 식욕부진과 폭식 최소한의 정상 체중 거부 90% 이상이 여성	밥상 앞의 결단	창 25:27-34
수면 장애	불면증 및 수면 과다 낮시간에 과다한 졸음 수면발작과 수면 중 호흡곤란	야곱의 돌베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창 28:10-22 시 127:1-2
적응 장애	스트레스에 대한 심한 고통 사회적 직업적(학업적)기능 장애	처음 밟는 땅이라서	민 13:30-33
편집적 인격장애	낮은 자존감 타인의 행동에 대한 불신과 의심 외면적으로 초연함, 무관심	의심의 벽을 넘어서 너는 존귀한 자라	요 20:24-29 사 43:3
분열성 인격장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 친밀감 부재 외면적으로 초연함, 무관심	고독에 사로잡힌 현대인 친교의 정신	시 68:6 행 2:43-47
분열형 인격장애	관계 망상적 사고 괴이한 사고와 언어 사회적 기술의 결여	인간 관계의 어려움 치유	골 3:12-17
경계선 인격장애	자아상 및 정동에서의 불안정 심한 충동성, 자살 충동	충동적인 죄악의 말로	왕상 21:25
자기애성 인격장애	자신에 대한 과장된 지각 과도한 찬사 요구 대인 관계가 착취적임	나르스시즘으로부터 구원	눅 18:9-14

<표 II. 7> DSM-IV에 따른 상담 설교 주제들 (2)

c. 본문 선택

주제를 선정했으면 그 다음 성경에서 본문을 선택해야 한다. 상담 설교의 본문은 그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 그 주제의 내용을 정확하고도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8] 한 책에서 특정한 부분만 선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책 한 권 전체를 강해하는 가운데 적절한 대목에서 상담 설교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주의 할 것은 설교자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d. 제목 결정

상담 설교의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택한 다음에는 그 설교 내용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제목을 확정하게 된다. 제목을 생각할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첫째, 간결한 것을 고른다. 둘째, 기억하기 쉬운 것을 택한다. 셋째, 본문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을 선정한다. 넷째,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을 피한다. 다섯째, 이미 익숙한 것을 활용한다. 여섯째, 가능하다면 새로운 것을 고안한다. 일곱째, 다양한 변화를 준다. 여덟째, 경우에 따라서는 번호를 붙여 연속 설교를 시도한다.

---

[118] 김만풍, *상담설교*, 77.

아홉째, 긍정적인 제목을 제시한다.[119] 이상과 같은 제목 설정에 대한 원리들은 다른 일반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참고적인 것들일 뿐 청중에서 다가갈 수 있는 제목이라면 어떤 것이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 본론 작성

본론에는 필수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분석(analysis)이요, 둘째는 종합(synthesis)이다. 분석은 본문을 모두 부분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며 종합은 분석한 결과들을 수집하여 그 설교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데 있다.[120] 따라서 본론을 구성하는데 있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중히 석의(exegesis)를 통해서 찾아야 하며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상담설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설교자는 성경에 없는 해석들을 억지로 끌어내기 위해 본문을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본문의 석의 과정(the process of exegesis)은 첫째, 언어의 의미를 찾는 것인데, 언어 연구를 통한 성경의 의미 포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사건은 단순히 말을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소통하시는

---

[119] 김만풍, *상담설교*, 78.
[120] 이주영, *현대설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0), 157.

사건이라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장르에 대한 고찰이다. 본문이 지닌 문학적 형식은 설교의 특성과 설명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맥락에 대한 이해이다. 본문의 설명과 그 주장이 왜 거기에 그런 형식과 의미를 띄고 제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배경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하나님의 기본 의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와 구속의 의미를 알리시려는 기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성경 해석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끝으로 가장 단순하고 기초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 해석의 출발은 본문이 지닌 가장 일반화되고 누가 보아도 명백한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121]

본문 석의 과정(the process of exegesis)과 함께 신학적 해석 과정이 함께 이어져야 하는데, 첫째로 설교는 성경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설득력 있고 합리적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해석은 성경의 세계와 현재를 연결하는 상응 기능을 가져야 한다. 둘째, 해석은 성경 속에서 자신을(설교자와 청중) 발견하는 기능이 되어야 한다. 성경이 지닌 역동적 빛 앞에서 설교자 자신과 청중이 함께 자신들의 참된 모습과 위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일이 설교가 지닌 해석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적 과정은 본문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

[121] 염필형, *현대신학과 설교형성* (서울: 감신대학출판부, 1991), 240-42.

느끼고 맛보고 또 볼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해석은 깊은 묵상을 통해 익어진다.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 속에서 비로소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한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122]

이상과 같이 본문의 석의 과정(the biblical process of exegesis)을 통해 본문 속에 있는 자신들의 문제를 파악하게 만들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설교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f. 서론 및 결론 작성

H. E. Knott는 설교에 있어서 서론은 설교의 각 부분 중 가장 기술적인 요령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123] 그리스의 수사학자 키에로(Cicero)는 서론의 목적을 세 가지로 언급하였다.[124] 첫째 청중의 마음을 붙잡는 것, 둘째 청중으로 하여금 주의해서 듣게 하는 것, 셋째 청중으로 하여금 대기하게 하는 것이다. 설교의 서론도 예외일 수는 없다.

설교의 서론은 이목을 모으고 흥미를 일으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중이 오늘 설교를 들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그 설교의 중요성과 무게를 깨닫게

---

122 염필형, *현대신학과 설교형성,* 243-44.
123 주성호, *21세기를 위한 설교* (서울: 대한기독서회, 2001), 195.
124 주성호, *21세기를 위한 설교*, 196.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대안과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주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설교에 있어서 서론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를 언급하느냐 일 것이다. 상담설교도 예외일 수 없이 서론에서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성도들의 현재의 문제를 설교자가 제시하면, 회중은 공감하게 될 것이고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것이다. 상담설교가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이것에 집중하게 해 주는 서론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중을 기울여야 하겠다.

결론 부분은 본론을 전개해 나가면서 제시한 성경적 원리들을 종합하여 메시지의 초점을 청중의 마음에 새겨놓고 적용이나 응답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일일이 다시 설명하는 대신에 표현을 바꾸어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다.[125] 상담 설교의 결론 부분도 다른 설교처럼 다양하게 끝맺음을 할 수 있다. 권면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도전의 말로 끝맺을 수도 있다. 또한 축복으로 끝을 맺거나 청중과 함께 결단의 기도로 끝맺을 수도 있다.

이처럼 결론의 중요성을 방법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데, 좋은 결론은 설교의 내용에 걸맞고 분명해야 하며, 개인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

[125] 김만풍, *상담설교*, 86.

하고 적극적인 희망이 담겨 있어야 하며,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도전과 함께 의지의 변화를 향한 결론이 제시되어야[126]만 하는 것이다.

3. 현대 상담설교 구조적 틀에 대한 비판

a. Donald Capps의 구조적 틀의 장, 단점

Donald Capps가 제안한 상담 설교의 틀은 현재의 청중들이 살면서 겪고 있는 삶의 정황을 알아내고 탐색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이것을 성경말씀으로 진단하고 해석하여 성도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해내는 방법은 일반적인 설교와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Donald Capps가 청중의 문제의 확인과 탐색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점은 설교가 현재의 삶과 동떨어져 그저 성경속의 이야기로만 남기 쉬운 단점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청중들은 서론이나 혹은 성경을 풀어나가는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듣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설교보다 공감하고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중들의 삶이라고 하는 컨텍스트(Contexts)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Text)의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들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

---

[126]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1), 213-14.

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Donald Capps가 제시한 구조적 틀의 가장 큰 단점은 상황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하다 보면 다분히 '아이서지시스'(Eisegesis)[127]적 경향을 보이기 쉽다는 점이다. 상황적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에 맞는 해답을 주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설교인 엑서지시스(Exegesis)[128]여만 한다. 성경 본문의 원 의미에 충실하면서 본문 속에 나타난 상황과 모습들이 현재의 성도들의 모습과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설교자의 양심이 필요하다. 또한 성경 본문과 현실적 상황과의 연결이 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설교자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럴 때만이 상담 설교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위험성인 본문을 상황 위주로 인용하는 설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b. 김만풍의 구조적 틀의 장, 단점

김만풍이 제시하는 구조적 틀은 Donald Capps의 것과 비교할 때 엑서지시스

---

[127] 설교학적 차원에서 아이서지시스(Eisegesis)란 성경 본문에 의미를 부여하여 읽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성경을 끌어다 의미를 부여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28]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를 끌어내어 읽는 방식 즉, 성경의 본 의미에 충실한 해석과 설명을 가지고 설교하는 석의 과정을 말한다.

적(Exegetical) 설교가 되기에 수월하다.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상담 설교의 개념은 단순히 상담적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를 상담 설교로 포괄해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의 설교는 거의 대부분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간다. 설교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확실히 옳다. 그러나 어쩌면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주가 되다 보면 회중들의 상황을 더욱 자세하게 살피고 그들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 주고자 하는 본래의 '상담 설교의 목적'을 이루는 데 부족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129] 그의 설교 중 "요셉의 용서[130]"가 바로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은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을 때 고향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을 팔아 먹었던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다. 이 때 김만풍은 다른 설명보다는 본문을 그대로 설명해 나간다.[131] "요셉의 용서"의 예는 어떤 용서였는가를 설명해 나가는 식의 설교이다. 그는 그의 설교가 회중에게 잘 되어지기 위해서 설교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나 설교의 최우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만풍이 견지하고 있는 본문의 충실성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

[129] 김한성, *상담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66.

[130] 김만풍, *상담설교* (서울: 크리스챤서적, 1995), 189-93.

[131] 김만풍, *상담설교*, 189-93,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고 나서 7년 풍년 기간에 많은 곡물을 사들여 창고에 저장했습니다. 8년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각국 백성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요셉이 형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용서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떤 용서였을까요?...." 그 밖에도 같은 책에 실린 "유다 백성의 낙심", "가인의 분노", "하갈의 고난"..등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문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석의 과정(the process of exegesis)에서 드러나는 문제 상황들을 현재 성도들의 문제와 잘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설교를 준비하는 순서에 있어서 본문에 대한 충분한 석의(exegesis)를 한 후 이것에서 나타난 삶의 원리와 구체적 지침을 가지고 성도들의 문제를 바라보며 서론과 결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c. 구조적 틀의 변화 필요성

현대 상담 설교의 대표적인 구조적 틀이라 할 수 있는 Donald Capps의 상담 설교 구조와 김만풍의 상담 설교 구조를 살펴 보았다. 이 두 가지 구조 틀은 모두 주제 중심의 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성도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문제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성경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주제 중심의 구조적 틀은 문제에 대한 성경적 안목과 해답은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개인이 어떻게 적용하여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변화 과정이 담겨 있지 않다. 상담 설교를 들으며 문제를 알고 해답을 알지라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성도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다. 이것은 상담의 과정처럼 일대일 대면을 하면서 실제적인 반응을 확인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과는 다르게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구체적 변화의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과 그 반응을 한참이 지난 다음에 알거나 아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담 설교가 좀 더 청중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적용되는 구체적 변화 과정이 담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의 변화 과정이 상담 설교에 적용된 새로운 구조적 틀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이유에서 '주제 중심'의 상담 설교 구조에서 '변화 중심'의 상담 설교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상담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 상담 모델'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 상담 모델'이 적용된 새로운 상담 설교의 구조의 틀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III. 성경적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A. 성경적 상담의 정의

1. 성경적 상담의 역사

a. 심리학에서 성경으로

전통적으로 목회상담의 목표는 회심과 거듭남과 성화였다. 그러나 심리학과 자유주의 신학의 결합으로 시작된 현대 목회 상담의 목표는 세속 심리적인 경건 즉 자아 실현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성주의 발달과 함께 교회 안에도 이성이 말씀 위에 군림하는 신학이 발달하였다. 이성주의는 신자들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적 신앙(Self-Centered Faith)으로 바꾸어 놓았다. 미국 목회 상담의 역사를 기술한 E. Brooks Holifield는 미국 목회 상담의 역사를 한마디로 '구원에서 자아실현'으로의 변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다.[1] 자유주의 신학과 전반적인 심리 치료학의 확산에 힘입어서 심리학적인 목회 상담은 전통적인 성경 중심적인 상담 사역을 쇠퇴시켰다.

---

[1] E. Brooks Holifield, *A History of Pastoral Care in America*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356.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자아실현 즉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추구하는 욕구가 팽배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심리학 만능주의 사회를 형성하였다.[2]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심리치료 상담자들 중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인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심리치료를 기독교와 접목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50년대와 60년대에 기독교 심리치료 상담자들이 모여서 CAPS(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를 조직하였고, 1965년도에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를 시작하였다. 1972년도에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인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임상심리상담자들을 배출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소위 '통합주의'(Integrationism)라고 불리는 새로운 심리상담 영역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복음주의적인 성경의 이해와 과학적인 심리학의 이론들을 조화시켜서 기독교 신자들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치료하는 영역을 개척하였다.

성경적 상담학은 이와 같은 심리학적 상담과 통합주의적 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1960년대에 그 당시 심리학이 비성경적이며, 반기독교적인 것을 고민하던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교수를 역임했던 제이 아담스를 통해서 주창되었다. 그는 일반 심리학의 내용들과 복음주의 심리학자들의 사상이 비성경적이

---

[2] Holifield, *A History of Pastoral Care in America,* 276.

라는 것을 지적하고 스스로 성경적인 상담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출판한 ‘성경적 상담학 개론’(Competent to Counsel)은 제이 아담스가 기독교인을 상담하는 것은 가장 먼저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자극을 위해서 저술하였다. 그는 심리학적 상담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적 심리 상담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교회에서의 상담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상담이 되어야지 상담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 책은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성경적 상담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시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성경적 상담학은 점차 쇠퇴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제이 아담스는 성경적 상담학을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시킨 뒤에 기존 심리학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심리학을 공격하기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에, 또한 목회자들은 상담사역만을 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80년데 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쇠퇴기는 다시 새로운 전화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이 아담스의 뒤를 이어 목회자 상담그룹을 이끌었던 존 베틀러는 아담스와 성경적 상담의 원리는 같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달랐다. 그는 내담자의 의식세계를 변화시켜 내담자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서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모든 심리학 이론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배척하던 분위기와는 달리 모든 이론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관계를 세워 나갔으며 심리학 이론 중에도 성경적

으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b. 성경에서 마음으로

90년대 이후 성경적 상담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에 대한 실망과 한계성으로 인해 교회는 상담 문제에 있어서 다시 복음주의적으로 돌아 가고자 하는 경향이 생겼고 이러한 분위기는 1996년에는 150명의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Alliance of Confessing Evangelical'을 경하고 'Cambridge Declaraton'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와 필요를 채워 주는 분으로 인식하게 하는 소위 변절된 복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래리 크랩은 'Christian Today'와의 대담에서 '심리적인 문제는 심리상담사'에게 '영적인 문제는 목사'에게 '육체적인 문제는 의사'에게 라는 이론을 강하게 반박하였다.[3]

제이 아담스의 권면적 상담(Nouthetic Counseling)은 그가 일선을 물러난 후 성경적 상담으로 개칭되고 기독교 상담 교육재단 C.C.E.F(Christian Counseling & Educational Foundation)의 Edward Welch나 David Powlison등과 같은 성경적 상담 2세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Jay E Adams가 '성격적

---

[3] David Powlison, *"Competent to Counsel? The history of a Conservative Protestant Anti-Psychiatry Movement"* (Ph.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6), 144-66.

변화'의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을 Edward Welch나 David Powlison은 '마음의 변화'를 강조한 것이다.[4]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C.C.E.F에는 부드럽게 다가가고 여러 사람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발전된 성경적 상담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피상담자의 고난을 중시하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큰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으로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교류하며 나누는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로써 성경적 상담학의 주된 주제는 '마음'을 다루는 것이 되었다. C.C.E.F의 연구진들은 아담스, 크랩, 애들러의 연구들을 종합하고 그 약점을 보완해서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상담 모델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C.C.E.F는 'Changing Lives Series'를 출판하였고 이 도서들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도서들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자녀교육의 문제와 가족 상호간의 대화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 괴로움에 대해서 '마음'에 대한 접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게 하는 것이다. 결국 '마음'에 대한 접근과 강조를 통해 성경적 상담학은 효과적으로 개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C.C.E.F의 노력은 성경적 상담학의 발전과 더불어 커다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

[4] 황규명,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성경적 접근," *총신대 논총* (제 24호 2004): 405.

2. 성경적 상담의 원리

성경적 상담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점에서 일반 심리 상담과 차별화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케 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성경적 상담의 기초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러므로 설교와 마찬가지로 상담은 곧 성령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다.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며 그 목표를 추구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상담의 방향과 추구하는 결과가 달라지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이 신적으로 부과하신 객관적인 표준인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런 표준도 있을 수가 없다.[5] 이처럼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 상담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6]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상담, 즉 치료를 한다고 할 때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그 존재와 삶이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상담이 없이는 본래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 수 없다. 상담은 흔히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온갖 문제가 다 생겼으므로 그 때부터 필요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상담은 인간 삶의 일부이며 타락 전부터 필요했다. 인간은 하나님 전적인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

[5] 제이 아담스, *목회상담학*, 63-64.

[6] 황규명, “상담과 목회의 실제,” *성경과 상담* (제 2권 2002): 55-64.

둘째,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상담에 의존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상담이 아닌 다른 상담(뱀의 유혹)에 귀를 기울였다. 인간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자연과의 관계도 모두 깨졌다. 즉 죄는 인간의 삶 전체,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죄의 성격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심각한 상담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상담, 뱀의 역 상담의 구도는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다.

셋째,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마음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 윤리적으로 전인을 지도하는 '생명의 근원'(잠 4:23)으로 지칭된다.[7] 또한 마음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의 측면에서 이해된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서 모든 악이 나오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출된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다.[8] 그러므로 상담이 성경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하며, 마음을 터치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며,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막 7:20-23)'고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고 하면서 마음의 중요성을 언

---

[7] Edward T. Welch, *Blame It on the Brain?*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98), 37.

[8] 김준수, "성경적 상담을 위한 인간이해," *성경과 상담* (제 2권 2002): 94.

급했다.[9] 행동만 고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며, 마음의 변화가 와야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며,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나온다'기 보다는 그러한 상황에 부딪힌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며,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된다.[10]

넷째,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인간의 마음을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다.(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고쳐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11]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며 나의 적이 누구인지도 알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신자는 확신과 능력이 있게 된다. 영안이 밝아져 사물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다.[12]

다섯째, 성경적 상담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

---

[9] Keil, Karl Friedrich, Delitzsch, Franz, *Commentary on the Old Testment*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866-91), 109-10.
[10] J. Anderew Dearman, *Jeremiah, Lamentation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3), 178-79.
[11]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1994), 48.
[12] 존 머레이, *조직신학 II*,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1), 240-41.

서 상담해 주신 경우가 많이 있다.(히 2:10-18) 이 성육신적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장벽을 깨뜨리며, 상담자를 겸손케 한다. 또한 인간적인 체험(실패, 고통)을 나눔으로 일체감이 생긴다. 무엇보다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자신감을 준다.[13]

여섯째,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고통 당하는 존재이다. 상담의 대상인 인간은 진공상태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환경 탓,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실제로 희생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해야 하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내담자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성경적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필요하며,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필요하다. 또한 성화를 위해 인간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 따라서 성경적 상담에서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며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14]

---

[13] Raymond Brown, *The Message of Hebrews* (Illinois: IVP, 1982), 59-62.
[14] Robert H. Mounce, *Roman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5), 186-87.

3. 성경적 상담의 특징

성경적 상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5]

첫째, 성경적 상담은 다른 인간관을 가진다. 인간을 수동적이고, 반응적이고, 박탈감과 피해 감정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이해한다.

둘째, 성경적 상담은 다른 상황관을 가진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가'하는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개인의 삶의 양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죄 또는 의가 발현되는 무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형태를 이해함에 있어서 '왜'(why)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셋째, 성경적 상담은 다른 변화의 자원관을 가지고 잇다. 진정한 변화는 사랑과 자존을 향한 뿌리를 깊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죄와 그 세력에서 깨끗케 하는 죄에 관한 치유가 변화의 자원이다.

넷째, 성경적 상담은 변화 과정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성경적 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거나 내적 치유의 발견, 또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자신감을 갖거나 자존감을 높여가는 것이 아니라, 회

---

[15] 데이빗 폴리슨, *"성경적 변화의 역학", 성경과 상담의 본질* (서울: 도서출판 선교 횃불, 2007), 6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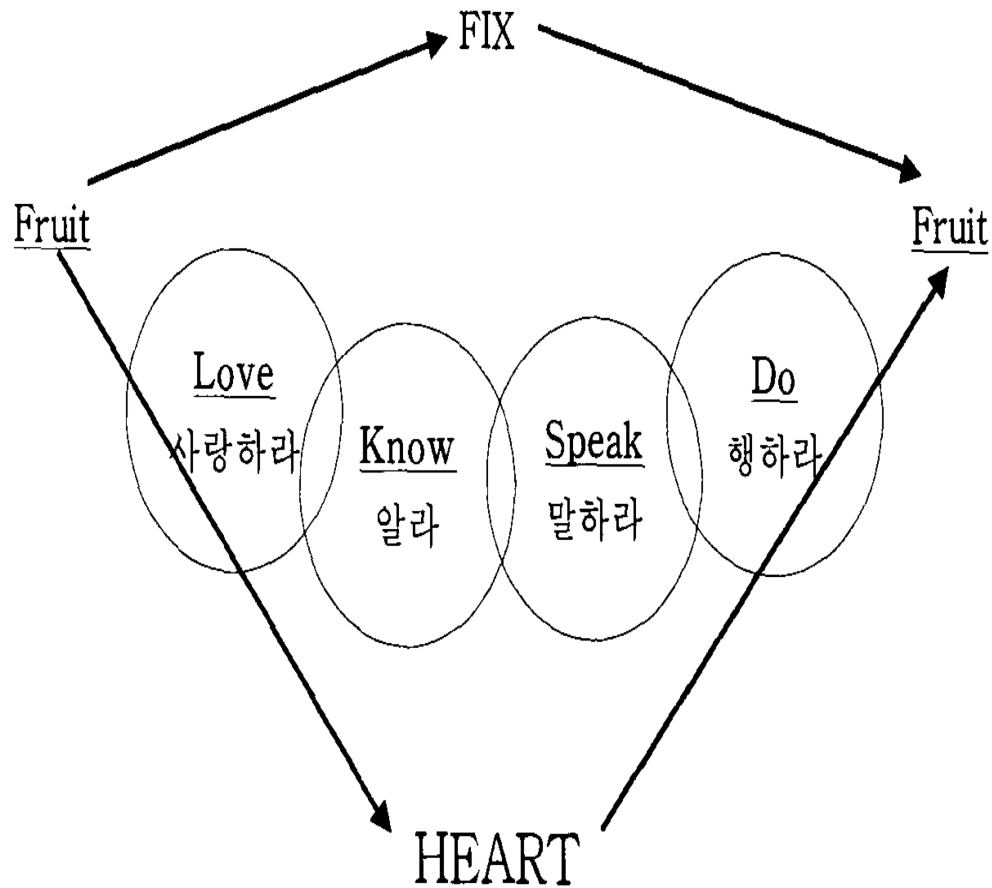
개, 믿음, 마음의 새로 워짐, 새로운 복종,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분께 영광을 돌리는 변화의 과정관을 진다. 오늘날은 자아를 존중하며 최고의 가치실현을 자아실현으로 말한다. 즉 최고의 관심이 자아 즉 '나'(Self)가 된 것이다. 자아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며, 성장과 기쁨의 경험을 위한 우리의 가능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과정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16] 그러므로 자아를 존중하여 그 필요를 충족시키고 치유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적 상담은 자아의 깨어짐과 회개, 새로 워짐과 복종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섯째, 성경적 상담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무력하게 바로만 보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의 감정의 부족함을 채우는 하늘에 계신 치료자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정을 고치시는 분,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인간의 느낌을 교정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적 상담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죄인을 위해 대신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분의 부활과 다스리심을 믿고, 양자 됨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죄를 없애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인생관을 가진다.

---

[16] Edward T. Welch,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97), 33-36.

4. 성경적 상담의 방법

Paul David Tripp은 성경적 상담의 기본 원리를 실제 상담에 적용하는 과정을 그림 5의 'Love-Know-Speak-Do' 모델을 제시하였다.[17] 이것은 단계별 순서가 아니라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림 III. 1> 성경적 상담의 방법

[17] Paul D.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2002), 108-09.

a. Love(사랑하라) : 내담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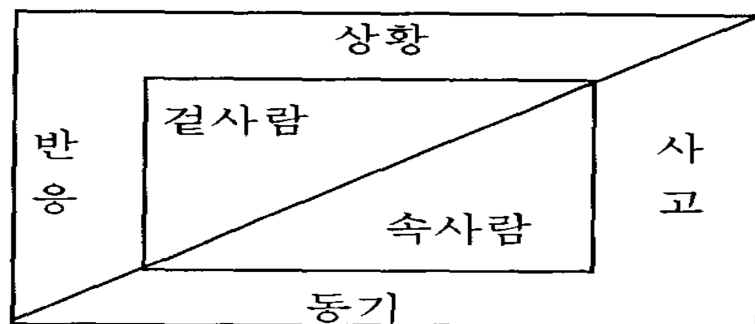
내담자와 관계 형성의 단계이다. 우선적으로 내담자가 주로 호소하는 감정을 살펴, 내담자의 지배적인 감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단계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모델 원리로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주로 호소하는 감정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문제를 이해하며 공감해 주어야 한다. 또한 내담자가 문제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며, 당면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싸움이기에 우리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며, 고난은 끝이 있다는 종말론적 관점을 갖도록 해야 한다.

b. Know(알라) :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의 목표는 첫째는 자료 수집의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인격을 이해하여 상담자가 성경적 상담으로 내담자를 돕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인격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상담자의 목표는 오랫동안 타고난 죄악성 때문에 자신에 관한 인식

에 있어서 소경과 같은 내담자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기 위한 메시야의 도구가 되어 자료 수집 과정에서 내담자의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를 야기 시키는 것이다. 내담자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충분한 질문이 필요하다. 이 때 상담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성경신학을 바탕으로 질문해야 한다.[18] 상담자는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기 위해 성경적 범주로 조직해야 하는데 자료를 조직화하기 위해 필요한 성경적 범부는 상황, 반응, 사고, 동기이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성경적 범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상황 (객관적 사실)	상황이 **어떠한가**?	내담자가 처한 압박들
반응(전략)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담자의 행동들
사고(구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담자가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
동기 (마음의 뿌리)	상황으로부터 혹은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는가**?	내담자의 욕구들, 목표들, 동기들, 가치들, 우상들

<표 III. 1> 자료 분석을 위한 성경적 범주

[18]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방법으로서의 자료 수집과 분석," *개혁논총* (제 2권 2004): 161-63.

c. 말하라 (Speak) : 사랑으로 진리 말하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단계로 성경적인 직면(Confrontation)을 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의 우상[19]을 발견하도록 직면의 과정(고려, 자백, 결단, 변화)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성경적 상담에서 직면은 내담자와 그리스도의 만남이 중요하다. 내담자에게 상담자의 판단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Confrontation)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고려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죄를 깨닫고 새사람을 입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마음에서 내담자를 직면해야 한다. 직면의 목표는 개인의 통찰이나 결단이 아니고 **변화**이다. '무엇'에 결단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되는 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내담자가 직면의 과정을 통한 결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변화**되도록 도와야만 한다.[20]

---

[19] Bob Thune and Will Walker, *The Gospel-Centered Life* (Greensboro: New Growth Press, 2011), 46. "현대인들의 마음에 공통적인 우상들: 1) 승인의 우상 2) 다스리고 싶은 우상 3) 명성의 우상, 성공의 우상, 안정감의 우상, 쾌락의 우상, 지식의 우상, 인정의 우상, 존경의 우상"

[20] 황규명, "기독교 상담에서의 직면과 복음," *복음과 상담* (제 4권 2005): 13-25.

d. 행하라(Do): 하나님의 뜻(답)을 일상 생활에 적용함

하나님의 생각을 내담자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단계이다. 이사야서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 55:8-9)와 같이 언급한 것처럼,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 보도록 돕는다. 내담자는 직면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적 통찰력을 갖게 되었으나, 이것만이 변화는 아니다. 상담자는 반드시 내담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뚜렷한 삶에 진실하게 적용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21]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책임감의 문제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책임과 자신의 책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성경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변화를 추구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내담자의 마음의 변화를 보여 주는 증거가 있고, 구체적인 변화의 행동이 있고, 자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성경적인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다면 상담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1]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112.

B. 성경적 상담 모델

1. 성경적 상담과 마음의 문제

성경적 상담의 기본 원리 중 제 3원리인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22]를 전체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원인을 마음으로 보고 그에 따라 문제의 뿌리인 마음에 대해 성경적 관점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적 상담은 마음 즉 생각과 사고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현재 성경적 상담학에서 다루고 있는 마음의 주제는 감정, 느낌을 기본으로 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소원, 그리고 동기와 의도를 살핀다. 이는 성경 자체가 인간의 마음, 즉 죄성의 근본적인 소원[23]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상담도 자연히 이와 같은 마음의 욕구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마음에 대한 이해'는 문화와 관습, 인종과 세대를 넘는 인간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22] 예레미야 17:9-11,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개역개정)

[23] 창세기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개역개정)
로마서 3:10-18,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개역개정)

a.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성경에서 마음은 본질적인 범부에 속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은 속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마음'을 사용한다. 성경은 인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이다. 겉사람은 육체적인 자아이고, 속사람은 영적인 자아이다. (엡 3:16; 고후 4:16)[24] 속사람의 동의어로 성경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마음이다. 이것은 속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다름 모든 용어와 기능(영, 혼, 정신, 감정, 의지 등)을 포함한다. 이 용어들은 마음과 다른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용어들은 마음의 한 면, 즉 속사람의 한 부분 혹은 기능이기 때문이다.[25]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 또한 마음이라고 말한다. 누가복음 6장 43-45절에 의하면, 식물의 뿌리와 그것이 생산하는 열매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열매는 행동과 같고 뿌리는 마음과 같다. 나무는 열매를 만들어 내고 우리의 마음은 행동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게 되는데, 성경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뿌리는 땅속에 있으므로 쉽게 보거나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

[24] 에베소서 3:16, "그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고린도후서 4: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개역개정)

[25] 폴 트립,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황규명 역 (서울: 디모데, 2007), 94.

예수 그리스도의 요점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그것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행한다.[26]

b. 문제의 핵심과 마음의 핵심

본질적인 마음의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욕구'와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 심리학에서 마음의 정의는 단순한 '감정'과 '태도'나 '생각'으로 국한되지만, 성경적 상담학에서 마음이란 '진정으로 바라는 것', 혹은 '은밀하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27] 이렇게 전정으로 간절히 은밀하게 계속해서 바라고 요구하는 것 속에는 자신만이 꿈꾸고 요청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그토록 바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28]

죄는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적이다. 에스겔 14장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것이었다.[29] 마음의 우상은 하나님 아닌 나를 지배하는 어떤 것이다. 예

---

[26] 트립,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96-97.

[27] Neil T. Anderson, Terry E. Zuehlke, Julianne S. Zuehlke, *Christ Centered Therapy* (Grand Rapids: Zondervan, 2000), 86-87.

[28] Kyle Idleman, *Gods at war: Defeating the idols that Battle for Your Heart* (Grand Rapids: Zondervan, 2013), 19.

[29] 에스겔 14:1-5,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아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

배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항상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예배한다.[30] 만약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신다면 그 외의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로마서 1:21-25절은 이것을 '바꿔치기'로 표현하였다.[31]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바꿔치기'하여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에 해당된다. 또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죄는 영적인 간음이다.[3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의 핵심에는 우상숭배가 있고 마음의 핵심에는 죄가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모두를 형성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의 초점이 마음의 변화인 이유이다.

2. 마음의 변화 과정

인간의 마음이 죄 문제의 근원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지속적인 변화는 반드시 인간의 마음이라는 통로를 거쳐야만 한다. 인간의 행동을 바꾸거나 상황을 바

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개역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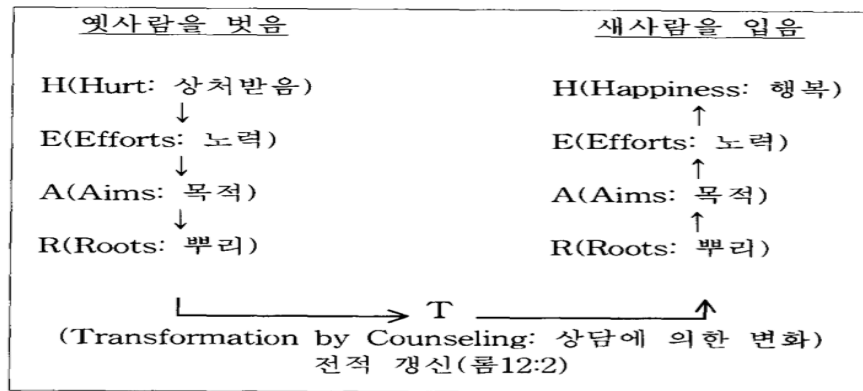
[30] Lain M. Duguid, *Ezekiel, The NIV Application Commne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9), 183-87.

[31] 트립,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102-03

[32] F.F. Bruce, *Romans, Tyandale New Testament Commentary* (Illinois: IVP, 1985), 89-91.

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킨다. 만약 마음이 바꾸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외부의 압력이나 보상이 주어질 때만 일시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그 압력이나 보상이 없어지면 변화도 사라질 것이다.[33]

a. Heart Model

성경적 상담은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Heart Model'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내담자가 전적 갱신을 목표로, 상담을 통해 성경적 관점으로 자신의 죄와 우상을 발견하여 자기 중심적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34]

<그림 III. 2> Heart Model

---

[33] 트립,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98.

[34]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2), 448-50.

Heart Model은 왼편의 'Heart'에서 오른편 'Heart'로 변화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상처받은 심령 (불안, 공포, 원망, 죄책 등)에서 행복으로, 자기 중심 (부정적인 상처받은 감정들에서 벗어나려는 비효과적이고 잘못된 태도)의 노력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삶으로, 자기 추구의 삶의 목적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의 우상들, 즉 명예, 재물, 욕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무의미하며 무기력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35]

b. Heart Model의 적용을 위한 8 가지 질문

다음 질문들은 Heart Model의 죄악된 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뿌리를 찾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새사람을 입기 위한 8 가지 질문들이다.[36]

(1) **상황 찾기** : 내담자의 상황은 어떠한가? (과거에는 어떠했고, 미래에는 어떨 것인가?) 뜨거운 태양과 같이 그를 괴롭히며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형편을 찾는다. 육체적이거나 혹은 영적인 문제들과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정치적인 어려움들도 모두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문제 상황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상황에서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

---

[35]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480-81.

[36] 폴리슨, *"성경적 변화의 역학", 성경과 상담의 본질*, 87.

이 있는데 바로 그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문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 다음 단계인 악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2) **반응 찾기** : 내담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과거에는 미래에는) 내담자가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질문한다. 그 상황 속에서 낙심과 좌절, 의기소침, 신경질, 짜증, 불평과 원망 등은 그가 만들고 있는 악한 반응이다. 이는 더욱 가중되어서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소망의 상실, 자포자기로 인한 자살 충동과 살인, 복수 등 극단적이며 악한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발전된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당연하고 정당한 반응이 아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잘 견디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반응이 사실은 악한 반응인 것이다.

(3) **욕구 찾기** : 내담자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욕구, 기대, 두려움 등) 이것은 악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피상담자의 마음 속에 실제로 있는 기대와 갈망, 소원 등을 찾는 질문이다. 그것은 그의 꿈꾸는 환상이며, 자신의 평안과 명예와 같은 가치이기도 하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우상이 된다. 그것을 추구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따랐던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은

밀한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반응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4) **결과 찾기** : 내담자의 반응의 결과는? (어리석음의 악순환) 내담자의 어리석음과 마음 속의 악한 소원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찾는다. 스스로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행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악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악의 결과임을 깨닫지 못하면 상황은 계속 어리석음의 악순환 (Vicious Circle of Folly)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를 직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비로서 구원과 변화가 일어난다.

(5) **은혜 찾기** :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으로 내담자는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게 되고,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은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죽는 데에 내어주셨다.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내담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에 따르고 순종하게 된다. 그리스도께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 이 후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에 은혜의 물결이 내담자에게 미치게 된다. (눅 24:32)

(6) **소원 찾기** : 내담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까? (히 4:16)

이것은 어떻게 선한 결심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제까지 악한 소원과 환상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리석음과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악한 마음이 변하여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이것이 선한 마음(Good Root)이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마음을 변하게 만든다.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 새로운 삶의 소망이 된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과 상황에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일어난다. 변화된 마음은 이전의 악한 반응을 줄여나가기 시작하고 점차 겉으로의 모습에서 선하게 변하기 시작한다.

(7) **실천 찾기** :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상황에 반응할까?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된 행동은 꾸준히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마음의 변화를 실제적인 삶의 열매들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선한 실천은 이전의 악한 반응에서 변화하여 선하게 바뀌는 것들이다. 이전의 악한 반응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던 모든 삶의 전혀 새롭고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결심과 노력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 구체적인 일들이 실행된다. 그 변화는 은밀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8) **변화 찾기** : 믿음과 순종 가운데 사는 삶의 결과는? (은혜의 순환) 이전의 선한 실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다. 삶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로 확장된다. 이러한 선한 실천을 통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열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악을 뿌렸을 때 그 결과를 거두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선을 뿌리므로 그를 통해 분명한 결과를 거둔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전체적인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문제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 피상담자는 최초의 문제 상황에 다시 직면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그는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었고 다음 번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함으로써 은혜의 순환을 이룬다. (사 1:18)

이와 같이 마음의 변화는 8 가지의 질문을 함으로 8 가지 요소(상황, 반응, 결과, 욕구, 은혜, 소원, 실천, 변화)를 발견해가면서 이루어진다.

c.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많은 문과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제공한다. 여기에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동기와 욕구의 반복적인 패턴과 마음에 자주 떠오르는 주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몇 가지 질문의 예들이 있다.[37]

첫째, 내담자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불안을 쉽게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 (마 6:19-34)

둘째, 그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으로 괴로워하는가? (잠 13:12,19)

셋째, 그는 어떤 상황에서 분노로 인해 괴로워하는가? (약 4:1-2; 잠 11:23)

넷째, 그가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 (약 4:1-10)

다섯째, 그가 삶에서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고전 10:13-14)

여섯째, 그가 어디에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그가 의식적으로 늘 피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곱째, 영적인 생활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시 73편)

여덟째, 어떤 부분에서 혹은 언제 내담자가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기도 하는

---

[37] 트립,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463-64.

가? (롬 1:25)

아홉째,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좋은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정의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기대는 무엇인가? (약 4:1-2)

열째, 그는 어떤 부분에서 비통함으로 인해 괴로워하는가? (엡 4:31; 잠 18:19)

열한째, 후회감과 씨름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만약 …라면'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열두째, 잊어버리기 힘든 과거의 경험은 무엇인가?

열세째, 기도와 개인적인 예배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경험했던 때는 언제인가? (약 4:3-4)

열네째, 질투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쉽게 탐내는 것은 무엇인가? (잠 14:30)

3. 마음의 변화를 담은 성경적 상담 모델 : Paul Tripp의 나무 모델[38]

이제 이 마음의 변화를 보여 주는 Heart 모델과 변화를 위한 8 가지 질문을 적용하여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큰 그림으로서의 나무 모델을 살펴 보고자 한다.

---

[38] Timothy S Land & Paul David Tripp, *How People Change* (Greensboro: New Growth Press, 2006), 97-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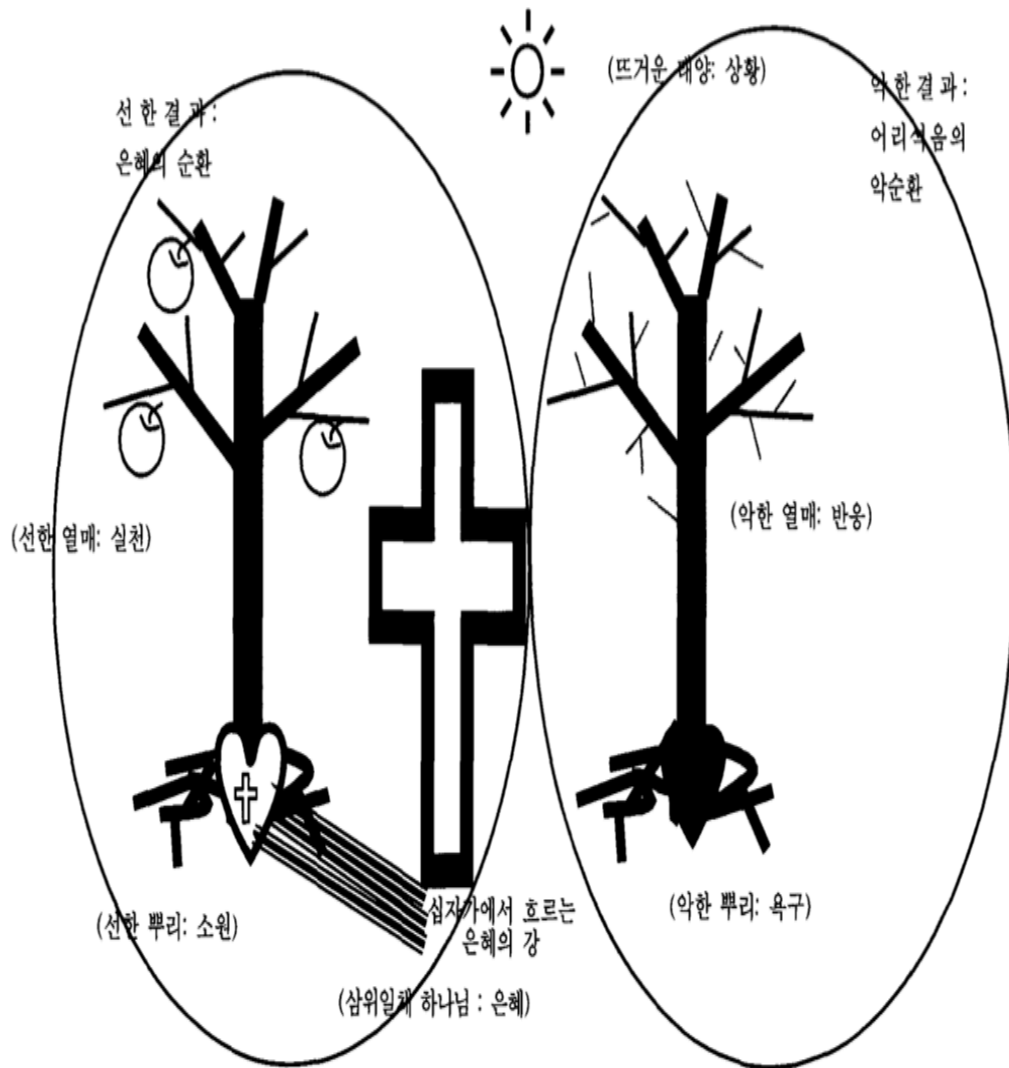
그림 7의 나무 모델은 성경적 상담의 구성 요소와 마음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제공해 준다. 나무 모델의 성경적 기초는 렘 17:5-11, 눅 6:43-45, 마 7:16-18에 있다.

[예레미야 17:5-1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배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 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7:16-18]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6:43-45]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산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뜨거운 태양'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악한 열매, 악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고 '악한 뿌리 : 욕구' 때문이다. '선한 열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악한 뿌리'를 '선한 뿌리'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나무가 완전히 변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악한 뿌리'의 핵심인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악한 마음은 선한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된다. 그럴 때만이 지속적인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무 모델은 3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첫째는 가시가 많은 나무와 열매가 많은 나무로 대변되는 인격이다. 이 인격의 중심은 뿌리를 이루고 있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다.

<그림 III. 3> 나무 모델[39]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뜨거운 태양으로 대변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들 즉, 압력, 유혹, 장애물, 시련, 적들, 거짓말쟁이들 등을 포함한다. 셋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원이다. 가시가 많은 나무, 악한 마음에서 부어지

---

39 Land & Tripp, *How People Change*, 95.

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능하신 대화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서, 생명 주시는 성령님으로서 역사하신다.[40]

나무 모델의 변화의 핵심은 마음을 바꾸는 작업이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고 좇으며 살던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좇는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이다.(엡 4:22-24) 이 작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 구원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빌 3:12 고전 15:31) 또한 '새 사람'의 열매를 맺는 뿌리의 근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영양분 즉, 하나님의 씨(요일 3:9)가 심기고 자람(마 13:32)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C. 성경적 상담의 적용

1. 성경적 상담의 목회적 적용

성경적 상담은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성도의 성화를 돕는 것과 비신앙적 사고를 성경의 진리에 맞는 신앙적인 사고로 바꾸어 주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목회적 적용을 할 수 있다.

---

[40] Land & Tripp, *How People Change*, 105-06.

a. 성화의 과정을 돕는 것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창조하셨다.(창 1:27)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 타락하여 모두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이 되었다.(롬 3:23) 이처럼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엡 4:22절에서, '옛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41] 속사람의 부패로부터 모든 죄악 된 행위, 말, 태도가 유래된다.(막 7:20-23) 이처럼 옛사람의 특징은 성경적이지 않은 신념과 감정과 행동에 얽매여 있으므로 죄된 사고와 죄된 감정과 죄된 행동을 한다. 이러한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비참하게 하며 고통을 겪게 한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42]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되어 다른 죄악의 원천이 된다고 말한다.(롬 6:16,19)[43] 인간의 비 육체적 측면인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새로운 마음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죄인이 성경말씀을 진리로 받아 들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련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곧바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다. (롬 3:21-24, 갈 2:16) 이와 같은 중생을 통하여 인간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며(겔 36:27, 욥 5:5, 8:10) 그 결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

[41] William Henderksen, *Exposition of Ephesians,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Co, 1967), 213-15.
[42] Robert H. Mounce, *Roman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5), 114-16.
[43] Douglas J. Moo, *Roman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0), 210-11.

남은 때를 살 수 있게 된 새사람'을 입게 된다.(엡 4:23-24) 이처럼 새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성령의 사역이며(딛 3:5), 인간의 마음을 거점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새사람을 입어 법적으로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과거 죄인이었을 때에 습득한 감정과 행동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는 이제 성경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수록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비 성경적인 왜곡된 마음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왜곡된 감정과 행동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요, 인정하고 성경적 마음과 감정을 품고, 성경적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성화이다.(빌 2:12)

b. 마음의 변화를 돕는 것

앞선 II 장에서 목회상담은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며, 상처와 질병의 치유 및 인격과 신앙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 정의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은 병든 자에게 목회적 돌봄과 상

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회현장에는 이처럼 병들어 의원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다. 목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문화, 사람, 환경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의 왜곡된 마음 또한 가질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더 취약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상담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어떤 다른 돌봄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왜곡된 마음들을 성경의 진리로 바꿔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44]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왜곡된 마음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45]

a) 나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b)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미워하신다.
c) 내가 영적으로 강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d)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분노나 불안,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다.
e)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에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f) 내게 충분한 믿음이 있다면 치유 될 것이다.
g) 나의 모든 문제는 내 죄 때문이다.
h) 다른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이다.

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일반적인 왜곡된 마음은 성경의 진리로 대체될 수 있다.

---

[44] Jay E.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9), 279-80

[45] 부르스 리치필드, 넬리 리치칠드, 정동섭 역,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서울: 예수전도단, 2002), 44.

왜곡된 마음	성경의 진리
처벌에 대한 두려움: 실패하는 자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정죄 받아 마땅하다.	속죄 (요일 4:9-10): 하나님은 나를 호의적으로 바라보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실패의 두려움: 나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지려면 성취해야 한다.	칭의 (롬 3:19-25):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거절의 두려움: 나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화해 (골 1:19-22):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자기 증오, 수치감의 두려움: 지금의 모습이 바로 나다. 나는 변화될 수 없으며 희망이 없다.	입양 (엡 1:3-7): 나는 고결하고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다.

<표 III. 2> 왜곡된 마음과 이를 대신하는 성경의 진리

목회자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마음들을 성경의 진리로 대체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지식과 안목을 가지고 성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기쁨과 능력과 확신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 성경적 상담의 설교적 적용

성경적 상담법은 상담 시작에서 끝까지 상담자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적극적이야 효과적이다. 이처럼 상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비

신앙적 사고를 찾게 하고 고치도록 안내하고 돕는 방식은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설교에 적용하기가 유리하다. 청중의 사정과 형편을 설교 작성 이전에 살피고 인지한 상태에서 그 문제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인 마음의 우상에 대해 설명해 주고 직면을 통해 성경적 진리로 대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설교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적 상담 과정 중 마음의 악한 뿌리를 찾는 것은 설교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찾아주는 것과 같다.[46] 문제 상황과, 고통을 이야기한 것은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문제의 핵심은 마음에 있는 악이고(눅 6:45), 하나님을 마음에서 두지 않는 것이고(롬 1:18),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스스로 채운 다른 우상들이다.(렘 2;13) 이와 같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라는 것을 말씀에 비춰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성경적 상담에서 마음의 변화는 직면 과정(the process of confrontation)을 통해 은혜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설교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같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치유와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요 10:10, 롬 8:37)을 경험하기 위해

---

[46] Kyle Idleman, *Gods at war: Defeating the idols that battle for your heart,* 30-31

서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성경적 사고로 대치)이 필수적이다. 원수의 거짓말에서 오는 거짓 사고와 거짓 신념(요 8:44)을 파악하고 끊어야 하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새로운 사고와 신념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 상담 설교의 직면의 과정은 이처럼 이전의 거짓된 것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변화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행 3: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처럼 회개는 '새롭게 되는 날', 즉 새롭게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해준다. 그리고 롬 12:1-2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 지침을 준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 방향과 목표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말해준다. 이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다.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 분별과 변화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도록 돕는 성경적 상담 모델에 기초한 상담 설교의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상담 설교의 구조적 틀로서의 나무 모델을 살펴 볼 것이다.

IV. Paul Tripp의 나무 모델에 근거한 상담 설교의 구성

A. Paul Tripp의 나무 모델

본 연구자는 앞의 III에서 상담 설교의 틀로서 도날드 캡스가 제시하는 구조적 틀과 김만풍이 제시하는 구조적 틀을 언급하며 그 장단점과 새로운 틀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제 새로운 상담 설교의 구조적 틀로서 성경적 상담 모델에 기초한 Paul Tripp의 나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왜 Paul Tripp의 나무 모델인가?

나무 모델이 상담모델이기는 하지만 상담 설교의 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나무 모델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설교의 목표인 성도의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고, 변화를 도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나무 모델은 이러한 사역을 좀 더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다. 죄를 깨닫는 것은 악한 열매, 악한 뿌리, 악한 결과를 깨닫게 함으로 변화를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인 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마음의 변화에 따른 선한 뿌리와 선한 열

매, 선한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처럼 나무 모델은 치유와 위로 라는 상담 설교의 일반적 목표를 넘어서서 변화라는 설교의 목표를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둘째는 나무 모델 자체로 성경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속 사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나무 모델은 성경의 여러 사건과 상황들 속에 담긴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분석해 내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 속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지 보게 해준다. 많은 상담 설교가 주제 중심이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서 멀어지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나무 모델을 틀로 한 상담 설교는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고 그것을 분석하도록 도움을 준다.

셋째 나무 모델을 통한 상담 설교는 일반 목회 상담에서 제공해 주는 삶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을 통해 가지 자신에 대한 통찰과 우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며 하나님의 복안을 설교를 통해 듣도록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는지 또한 설교를 통해 이야기해 줌으로 상담 현장에서 얻는 유익을 그대로 설교를 통해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이처럼 성경적 상담 모델인 나무 모델에 기초한 상담 설교의 틀을 구성하는 것은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다루어 줄 수 있고 또한

인간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특별히 나무 모델은 인간의 마음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설교자는 성경적 상담 모델을 통한 상담 설교를 구성함에 있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지침이 있다.[1] 첫째, 인간의 마음과 행동은 부정할 수 없는 뿌리와 열매의 관계가 있다. 사람들과 상황은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 다만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둘째, 지속적인 변화는 항상 마음의 경로를 통해 일어난다. 열매의 변화는 뿌리가 변한 결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 23:25-26절에서 그리스도는 '먼저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변화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마음의 사고와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마음은 개인적인 성장과 사역에 설교자의 목표가 된다. 하나님이 청중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시고,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마음 또한 변화시키시며 그 결과로 새로운 말과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나무 모델에 따른 상담 설교의 구조적 틀

성경적 상담 모델에 따른 위와 같은 지침을 기억하며 상담 설교의 틀을 제

---

[1] 폴 트립,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황규명 역 (서울: 디모데, 2007), 101.

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성경 본문을 나무 모델에 의해 분석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나무 모델에 따른 성경 분석의 예는 다음 단락에서 다루었다. 성경 본문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성경 본문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본문에 대한 충분한 해석의 과정을 요한다.

둘째로는 본문에 나타나는 나무 모델의 구성 요소와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 대비해 본다. 설교의 과정은 본문을 해석한 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바 의미를 발견하고 적용하여 우리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다.[2] 설교란 단순히 진리를 전달하는 것 이상이다. 설교는 성경의 진리를 청중의 삶에 연결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조셉 스토웰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효과적인 설교의 척도는 세련된 설교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청중의 삶을 연결하는 설교자의 능력에 있다."[3]

설교자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변화를 바라보며 설교하는 것이다.[4]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청중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교할 때마다 성경 말씀이 오늘날 청중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 주려고 노력해야 하며, 성경적 진리의 적용이 어떻게 청중의 삶에 구체화할 수 있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해

---

[2] 해돈 W. 라빈슨, *강해설교*,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07-10.

[3] Joseph Stowell, *"Preaching for Change" in The Big Idea of Biblical Preaching*, ed, Keith Willhite and Scott M Gibson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Co, 1998), 125.

[4] Haddon Robinson, Stephen Olford, *Anointed Expository Preaching*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8), 252.

야 한다.[5]

이와 같이 나무 모델에 의해 분석된 성경 본문을 또한 지금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다음 같은 마음의 변화를 적용하기 위한 8가지 질문을 성경 본문과 성도들을 향해 던진 후 답을 찾아 다음과 같이 표를 작성하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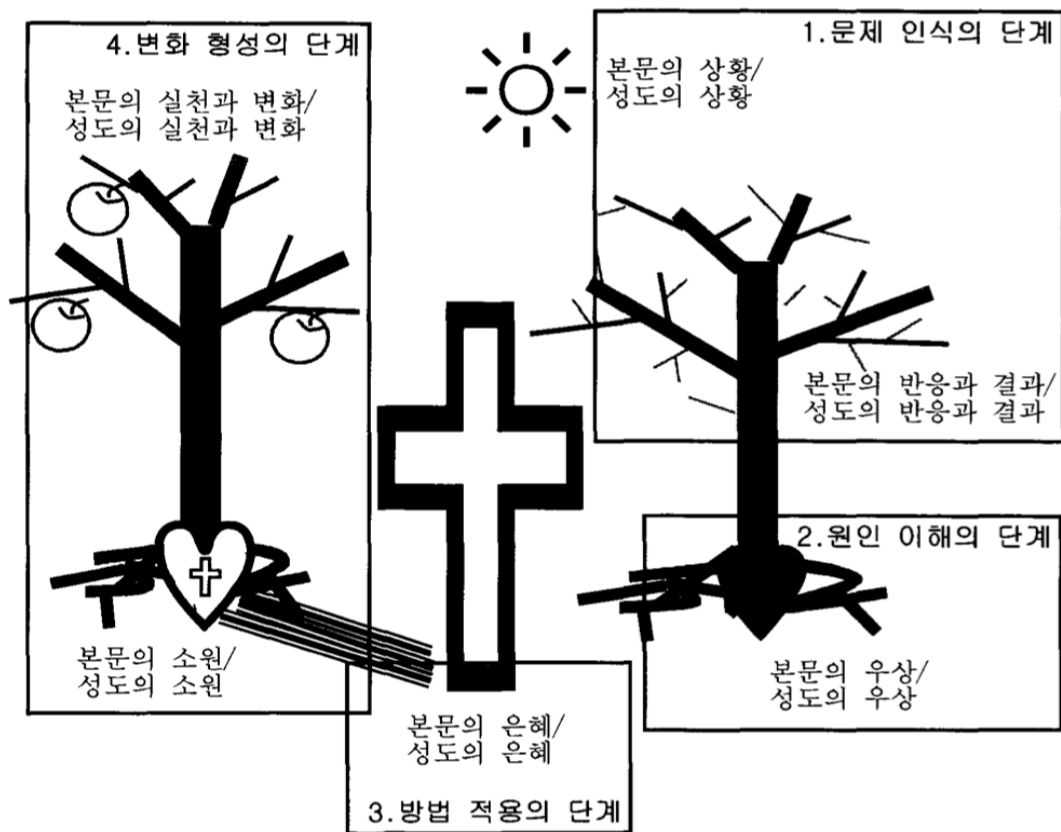
나무모델 구성요소	성경본문	현재의 적용점
상황	본문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반응과 결과	본문(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의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결과는 어떠한가?
욕구	본분(의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상발견하기)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우상인가?
은혜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가?
소원	본문(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가?
실천및 변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삶의 결과가 있는가?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기기 위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삶의 결과가 있을 것인가?

<표 IV. 1> 상담 설교 작성을 위한 질문

여기서 원래 모델과 약간 다르게 적용한 부분은 설교는 상담과 달리 전하고

[5] 테리 G, 카터, J. 스코트 듀발, J. 다니엘 헤이지, *성경설교*, 김창훈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9), 128.

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하므로 나무 모델에서 말하는 반응과 결과를 함께 묶어 줌으로 단순화 하였다.

세 번째로 위와 같이 본문 분석과 현재 상황에 적용점을 찾은 후 상담 설교를 구성해 나간다. 상담 설교 구성의 단계는 문제의 인식 단계(상황, 반응과 결과), 원인 이해의 단계(욕구를 파악하는 단계), 방법 적용의 단계(은혜를 적용하는 단계), 변화 형성의 단계(소원을 가지고 실천 및 변화하는 단계)로 나누 하나씩 구성하면 된다.

<그림 IV. 1> 상담 설교 구조의 틀

B. 나무 모델에 따른 성경 분석 예

이제 위에서 제시한 상담 설교의 구조적 틀인 나무 모델에 근거하여 성경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목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
본문	요 5:1-9
뜨거운 태양 (상황)	1) 베데스다 연못 물에 천사가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는다. 2) 그런데 나는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38년째 이대로 있다.
악한 열매, 결과 (반응과 결과)	1) 못에 넣어 줄 사림이 없는 것을 원망 2) 38년이나 이대로 있는 것에 대한 절망 3)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나올 수 없다는 포기
악한 뿌리 (욕구)	1) 나는 못에 나를 넣어 줄 사람도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2)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나을 가망이 없다. 3) 다른 사람의 인정, 도움이 없다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고, 변화할 수 없다. 4) 타인이 우상이 됨
은혜 (직면)	1)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2) 너는 병이 낫는 것보다 너를 도와 줄 사람이 없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 3) 진정으로 너를 돕고, 치유해 줄 자는 바로 나다.
선한 뿌리 (소원)	1) 진정한 치유자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회개함 2) 예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이심을 깨닫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도와 줄 타인이 아닌 예수님이시란 것을 인정함 3)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
선한 열매, 결과 (실천과 변화)	병이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감

<표 IV. 2> 나무 모델에 따른 성경 분석 예

제목	유산 분배에 대한 도움 요청
본문	눅 12:13-21
뜨거운 태양 (상황)	자신의 형이 물려 받은 유업을 나누지 않음
악한 열매, 결과 (반응과 결과)	1) 선생(예수님)을 찾아와 형이 잘못했음을 판결 받고 2) 재산을 나눠 갖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함 3) 억울함 4) 분노
악한 뿌리 (욕구)	1) 재산에 대한 욕심, 탐욕, 재물이 우상이 됨 2) 재산이 있어야만 나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
은혜 (직면)	1) (너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와 같다. 2)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찾으라.
선한 뿌리 (소원)	1) 형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은 형이 재산을 나눠 주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고 재물에 대한 자신의 탐심 때문임을 깨달음 2) 하나님 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음을 회개함
선한 열매, 결과 (실천과 변화)	형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풀고 삶의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

<표 IV. 2> 나무 모델에 따른 성경 분석 예

제목	세리와 식사한 것에 대한 바리새인과의 대화
본문	마 9:9-13, 막 2:13-17, 눅 5:27-32
뜨거운 태양 (상황)	예수님께서 죄인(세리)들과 식사를 함께 하심
악한 열매, 결과 (반응과 결과)	1)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며 비난하고 2) 불쾌해 함
악한 뿌리 (욕구)	1) 세리나 죄인 같은 멸시 받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2)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교만 3) 자고함이 우상이 됨
은혜 (직면)	1)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2) 스스로 의롭다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너)에게는 의원(구원자)이 필요 없다. 3)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선한 뿌리 (소원)	1) 교만을 회개함 2) 자신도 의원이 필요한 자임을 인정함
선한 열매, 결과 (실천과 변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음

<표 IV. 2> 나무 모델에 따른 성경 분석 예

제목	간음을 한 여인을 용서하심
본문	요 8:3-11
뜨거운 태양 (상황)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옴
악한 열매, 결과 (반응과 결과)	1) 저 여자는 분명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죽여야 한다. 2) 분노 3) 무자비
악한 뿌리 (욕구)	1)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지라도 율법을 따르는 의로움을 택하겠다. 2) 나는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의로운 사람이다. 3) 자기 의가 우상이 됨
은혜 (직면)	1)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 너희도 죄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너도 의롭지 않다. 2)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 참된 의는 정죄하지 않음, 즉 용서에 있다.
선한 뿌리 (소원)	1)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와 자기 의를 회개함 2)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없음을 깨달음 3) 죄짓는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음 4) 용서함
선한 열매, 결과 (실천과 변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지 않고 떠나감

<표 IV. 2> 나무 모델에 따른 성경 분석 예

제목	고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위로
본문	고후 1:3-11
뜨거운 태양 (상황)	1) 환난 중(4절) 2)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8절) 3) 큰 사망(10절)
악한 열매, 결과 (반응과 결과)	1) 삶의 소망이 끊어짐(8절) 2)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음(9절)
악한 뿌리 (욕구)	자기를 의지함
은혜 (직면)	1)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다. (4절) 2) 나의 고난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5절) 3)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 (5절) 4) 환난의 목적은 고린도 성도의 본이 되어 그들도 견디게 하기 위함이다. (6절) 5)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다. (9절) 6) 하나님이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다. (10절)

<표 IV. 2> 나무 모델에 따른 성경 분석 예

선한 뿌리 (소원)	하나님만 의지함
선한 열매, 결과 (실천과 변화)	1)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함 (3절) 2) 고난을 견딤 (6절) 3) 소망을 가짐 (7절) 4) 환난에서 건지심 (10절) 5) 감사함 (11절)

<표 IV. 2> 나무 모델에 따른 성경 분석 예

제목	형제를 사랑하라
본문	요일 3:13-20
뜨거운 태양 (상황)	세상이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미워함
악한 열매, 결과 (반응과 결과)	1) 세상과 같은 삶은 삼 2)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도와 줄 마음을 닫음 (17절) 3) 말과 혀로만 사랑함 (8절)
악한 뿌리 (욕구)	1) 형제를 미워함 2) 사망의 마음
은혜 (직면)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16절) : 선택이 아니고 마땅한 바다. 2)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는 것이다. (15절) 3) 혹 실수하여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20절)
선한 뿌리 (소원)	1) 형제를 사랑함 2) 생명의 마음 3) (형제 사랑의) 마음을 굳게 함
선한 열매, 결과 (실천과 변화)	1)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 2) 진리에 속함

<표 IV. 2> 나무 모델에 따른 성경 분석 예

C. 나무 모델에 따른 상담 설교의 구성과 절차

앞장에서 성경적 상담 모델인 나무 모델은 기초한 상담 설교의 구조 틀을

제시하였다. 이제 이 나무 모델을 기초로 해서 상담 설교를 작성할 때 그 세부적 구성과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1. 본문 선택 및 주제 선정

상담 설교의 일반적인 주제 선정 및 본문 선택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루었다. 상담 설교의 특징은 특정한 상담적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주제를 먼저 선택하고 그에 맞는 본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본문에서 끌어 내기 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성경 본문을 끌어다 쓸 위험을 늘 가지고 있다. 메인 텍스트인 성경으로 그들의 다양한 컨택스트를 이해하고 조명해 주어야 하는데, 성경을 보조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전락하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늘 긴장하고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경적 상담 모델인 나무 모델의 틀은 좀 더 본문 중심적이다. 성경 본문을 나무 모델 틀에 따라 분석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서 주제와 메시지를 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모델을 이용한 상담 설교를 할 경우 먼저 본문을 선택하고, 그 본문을 분석한 후 주제를 정하기를 권한다. 먼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담은 나무 모델을 구성하려면 성경이 담고 있는 본 의

미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나무 모델에 따른 본문 분석 및 적용

본론 작성을 위해 주어진 성경 본문을 나무 모델 틀에 맞춰 분석한다. 앞서 언급한 마음의 변화를 위한 8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에서 그에 따른 해답을 찾도록 한다.

처음 분석에서는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첫째, 상황 찾기 : 내담자의 상황은 어떠한가? (과거에는 어떠했고, 미래에는 어떨 것인가?)

둘째, 반응 찾기 : 내담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과거에는, 미래에는)

셋째, 결과 찾기 : 내담자의 반응의 결과는? (어리석음의 악순환)

넷째, 욕구 찾기 : 내담자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욕구, 기대, 두려움 등)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그리고 그 상황과 반응, 결과, 욕구를 향해 성경이 지적해 말하고 있는 바 은혜가 무엇인지 찾고, 그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변화된 마음의 소원과 변화된 반응과 결과를 찾아 작성한다. 그 다음 한번 더 본문을 살피며 본문 행간에 숨어 있는 뜻을 찾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무 모델 틀에 맞춰 적는다.

나무 모델에 따른 분석이 끝나면 본문에 대한 강해적 연구를 하도록 한 후

본문 해석으로 드러난 상세한 내용을 나무 모델 틀과 병행하여 적어 넣도록 한다. 본문에 대한 해석은 본문이 원래 의도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 주고[6], 또한 이전에 분석한 나무 모델의 본문이 전체 흐름과 벗어나지 않는지 검토해 준다. 이 때 해석에 드러난 본문의 의미와 나무 모델에서 찾아낸 의미가 다르다면 과감히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설교자는 상담 설교자 자칫 상황에만 집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가능성을 한시라도 잊는다면 이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7]

이렇게 해서 나무 모델에 의한 본문 분석이 끝나면 이것을 기초로 하여 현재 성도들의 상황을 대비해 본다.[8] 이것은 본문의 상황과 성도의 상황에 다리를 놓기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청중의 특별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전달함으로써 설교가 청중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9] 이를 위해 본문을 향해 던졌던 질문을 동일하게 성도의 삶을 향해 던져 보아야 한다.[10]

---

[6] Graham Johnston, *Preaching to a Postmodern World*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Co, 2001), 9-10.
[7] G. Robert Jacks, *Just Say the Word: Writing for the Ear* (Grands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6), 18-19.
[8] Haddon Robins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2nd ed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Co, 1980), 183.
[9] 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8), 184.
[10] James Braga, *How to Prepare Bible Message* (Portland: Multnomah, 1981), 139-40.

3. 제목 결정

나무 모델에 따른 분석과 본문 해석이 끝나면 이를 통해 드러난 주제를 바탕으로 설교 제목을 결정한다.[11] 제목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리는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다.

4. 본론 작성

a. 문제 인식의 단계

고려의 문제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길잡이가 되어 준다.[12] 본문의 흐름은 나무 모델의 흐름과 같이 가는 것이 좋다. 즉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때 드러난 반응과 결과들이 어떠한지 소개해 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 설명은 서론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성도의 삶과 대비하여 성경에서 드러난 상황과 반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도록 한다.

---

[11] Keith Willhite, *"A Bullet versus Buckshot: What Makes the Big Idea Work?" in The Big Idea of Biblical Preaching*, ed, Keith Willhite and Scott M Gibson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Co, 1998), 14.
[12] 트립,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334.

b. 원인 이해의 단계

고백의 단계로 '하나님이 성도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이제 드러난 반응과 결과가 상황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숨겨진 마음의 동기 즉 욕구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 해 준다. 이것은 나무 모델의 성경적 기초가 되었던 렘 17:5-8[13], 눅 6:43-49, 마 7:16-17, 막 7:18-23 등을 들어 설명해 주면 좋다. 이것을 설명해 줌으로 숨겨 있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한다.[14]

본문에서 드러난 반응은 나쁜 열매에 해당한다. 이것을 만들어낸 뿌리를 찾아 주는 것이다. 눅 6:45절 말씀처럼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마음 속에 숨겨 있는 동기와 우상을 찾아 내어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의 시작이다.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므로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는데 합당하다.[15] 마음의 동기와 우상이 드러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죄와 우상을 깨달을 수록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

[13] Lane & Tripp, *How People Change*, 95-97
[14] Thune and Walker, *The Gospel Centered Life*, 46-47.
[15]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개역개정)
[16] 누가복음 7:47,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

c. 방법 적용의 단계

헌신의 단계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라는 길잡이 질문을 던진다. 숨겨 있는 마음의 동기를 찾았다면, 이제 그것을 향해 성경이 지적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야 한다. 성경이 나쁜 뿌리와 우상을 향해 직면(confrontation)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청중은 통찰을 얻고, 회개와 결단의 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소명을 품게 된다. 이 과정은 은혜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17]

d. 변화 형성의 단계

변화의 단계로 ‘이러한 새로운 헌신이 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만하겠는가?’ 질문을 던진다. 이제 마지막 앞에서 깨달은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은 결론에서 다뤄도 좋다. 은혜를 통과하며 얻은 직면과 권면을 통해 얻은 통찰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를 제시해 준다.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훈련으로 열매 맺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성화의

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개역개정)

[17] John MacArthur, *Counseling: How to counsel Biblically* (Nashville: Nelson Reference & Electronic, 2005), 205.

과정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다.

5. 서론과 결론 작성

본론 작성을 마치면 이 설교가 청중에게 관심 있게 다가 가고, 효과 있게 적용되기 위한 서론과 결론을 작성한다. 본론의 내용 중 상황적 설명을 청중의 정황과 맞춰 서론에서 다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을 권면하고 도전하는 결단의 요소로 결론을 작성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으로 위로 받고, 책망 받고, 도전 받고, 격려도 받지만,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어 세상에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 주는 것이 설교의 목표이다[18]. 그런 의미에서 결론은 발견한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게끔 도와주는 결단력과 함께 의지를 불어 넣어줌으로써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힘있게 대처하고 능력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이어야 한다.[19]

이상과 같이 나무 모델을 적용한 상담 설교의 구성은 일반 해석의 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성경적 상담 모델을 형식으로 한 새로운 상담 설교의 구조적 틀이다. 본 연구자는 이 상담 설교의 구조적 틀이 상담 설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현대 목회의 새로운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

[18] Bryan Chapell,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Christ-Centered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1994), 315.
[19] John Killinger, *Fundamentals of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1985), 158.

D. 나무 모델에 따른 상담 설교 작성 실례

1. 나무 모델에 따른 성경 분석

제목	탐욕의 무덤		
본문	민 11:4-35		
반응	백성들	모세	해석
뜨거운 태양 (상황)	1.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5) 2. 그러나 이제는 만나 외에는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6)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음(10)	
악한 열매, 결과 (반응과 결과)	1. 그래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4) : 원망, 불평 2.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6) :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한 불평 3.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장막에서 움(10) 4.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재미있었다(18) 5.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21) :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때가, 그곳이 더 나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함 → 원망, 불평, 쾌락을 갈망함	1.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11) 2.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고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 나로 짐지게 하십니까?(11) 3. 이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왜 내가 품고 인도해야 합니까?(12) 4. 책임이 심히 중해서 혼자 못한다(14) 5. 차라리 날 죽게 하라(15) → 원망, 불평, 자포자기	1. 사명이 무거워 죽기를 간청했던 다른 선지자들: 엘리야(왕상 19:4), 요냐(욘 4:4) 2. 애굽이 더 재미있었다

제목	탐욕의 무덤		
본문	민 11:4-35		
반응	백성들	모세	해석
악한 뿌리 (욕구)	1.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4) 2. 백성 온 가족에까지(10) 3. 만나를 싫증내고 애굽의 맛있는 것들을 갈망함(5) 4. 쾌락을 좇으며 여호와를 멸시함(20) 5.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신 → 육신의 만족을 좇는 우상 → 내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자기 우상 →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불신	1. 백성들은 내게 불평하며 안 돼 2. 나 혼자 못해 3. 짐 지고 싶지 않아 : 책임전가 4. 60만명을 무엇으로 먹일 수 있겠는가? →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 내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자기 우상 →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불신	1. 섞여 사는 무리: '중다한 잡족을 가리킴'(출 12:38) 2. 십호멜: 220L로 흙더미, 무더기란 뜻, 지면 위에 산더미처럼(2규빗=약 1m) 메추라기가 쌓였을 것이다.
은혜 (직면)	1. 1개월간이나 메추라기를 질리도록 먹게 됨 2. 큰 재앙으로 치심 :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	1.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동일한 신이 임함 2.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3.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능력을 상징한다.
선한뿌리(소원)	1. 몸을 거룩히 하고 2. 고기 먹기를(은혜를) 기다리라(18)	1.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함	
선한열매, 결과(실편과 변화)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음	성령이 임한 70명의 장로들과 일을 분담함	

2. 나무 모델의 구성 요소와 성도들의 삶의 정황 대비

구성 요소	성경본문	현재의 적용점
상황	본문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1. 백성들 1) 과거에는 애굽에서 힘들게 노예생활하며 지냈으나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였다. 2) 그러나 지금은 광야에서 생활 중이다. 3)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만 먹고 다른 음식은 먹지 못하는 상황이다. 2. 모세 1) 백성들의 원망과 2) 불평을 들음	1.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 주가폭락, 환율상승, 가계부채, 경기불황 등으로 살기 힘들다고 말한다.
반응 과 결과	본문(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의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결과는 어떠한가?
	1. 백성들 1) 애굽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2)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만을 표하고 3) 지금은 만나밖에 없어 몸이 쇠약해졌다고 여기며 4)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함 5) 애굽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을 낳음 2. 모세 1)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과도한 짐을 맡기셨다고 원망과 불평함 2) 차리리 죽여 달라고 자포자기함	1. 경제의 어려움으로 가계가 불안하고 2. 미래가 불안하고 3.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화나고 4. 우울하고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속상하다. 5. 이 어려운 짐을 진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괴롭다. 6. 다 벗어 버리고 떠나고 싶다. 7. 포기하고 싶다.

구성 요소	성경본문	현재의 적용점
욕구	본문(의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상발견하기)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우상인가?
	1. 백성들 1) 더 맛있는 것을 원하는 쾌락을 좇는 탐심 2)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함 3) 자신에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특권의식(자기 우상)이 있음 4)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있음 2. 모세 1) 백성들을 책임지고 싶지 않는 마음 2) 60만 명을 어떻게 먹일지 의심함 3) 백성들과 동일하게 자기 우상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불신이 있음	1. 자기가 우상이 되어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살고자 하는 탐심을 가지고 있다. 2. 어려움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3. 왜 내게 어려움이 있냐고 현실만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을 함 4. 나의 미래를 쌓아 놓은 물질에 의지하고 5.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불신
은혜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가?
	1. 백성들 1)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심 2) 탐욕을 낸 백성을 심판하심 2. 모세, 백성들 1) 엄청난 메추라기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3. 모세 1) 70명의 장로를 세워 2) 짐을 덜어 주심	1. 이제껏 삶을 돌아보라 2.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다. 3.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4. 꼭 필요하다면 공급해 주신다. 5.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신다. 6. 외적인 것이 채워져도 내면은 공허할 수 있다. 7.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원망하고 얻는 것이 아니다. 8.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모세처럼)이다.

구성 요소	성경본문	현재의 적용점
소원	본문(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가?
	1. 백성들 1) 원망과 불평으로 고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2) 은혜를 사모함으로 3) 몸을 거룩히 하고 주신 것을 취함(탐욕을 낸 백성은 큰 재앙으로 죽었다) 2. 모세 1) 자신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2) 모두에게 신을 주어주심을 원함	1.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2.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3. 지금의 상황과 형편에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라 4.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분(고전 10:13)께 피할 것(하나님께 맡길 것)과 5. 감당할 것(순종할 것)을 분별할 지혜를 구함 6.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빌 4:13)을 구함
실천 및 변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삶의 결과가 있는가? (있어야 하는가?)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삶의 결과가 있을 것인가?
	1.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2.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 3. 자신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고 4.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 5.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6.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순복한다.	1.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2.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 3. 필요를 좇는 것이 아니고 4. 주어진 것에 충실하며 살아간다. 5.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며 6. 그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7. 세상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3. 상담 설교 구성 단계에 따른 설교 본문 구성 예

a. 문제 인식의 단계

1) 적용할 점 : 고려의 단계

(1) 질문 : ‘하나님이 성도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2) 본문 상황 설명 : 이에 따른 드러난 반응과 결과 소개

(3) 성도의 삶과 대비

2) 적용점에 따른 설교 본문 및 분석

본문	분석
이곳은 지금 광야입니다. 먹을 수 있는 식물은 커녕 풀 한 포기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늘 하나 없어 금방이라도 타죽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형편이 더 열악합니다. 아까 낮에 더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춥습니다. 불을 피우지 않으면 곧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가도가도 끝없는 광야만 보일 뿐입니다.	← 상황설명 (본문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 생활이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특별히 삶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먹을 것이라도 풍족히 먹으면 좋겠는데 매일 먹는 것이라고는 아침마다 나가 거둬오는 만나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때 불현듯 옛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생선도 먹고, 부추, 파, 마늘 등 온갖 채소로 식탁을 채웠었습니다. 참외 수박 등 간식거리도 풍부했었습니다. 예전에 먹던 것들을 생각하니 이 광야의 생활이 더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 드러난 반응 소개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거지? 모세! 하나님! 그래 우리를 젖과 꿀이 흐리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고는 이게 뭐야 ~~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죽을꺼야! 모세에게 가서 항의를 해내야만 해!	← 상황설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불평을 말하고	← 드러난

원망하고 누가 책임질꺼냐며 모세에게 책임지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모두가 돌아간 시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아뢥니다. '하나님, 내 책임이 너무 중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저들을 저 혼자 책임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혼자 이 짐을 지고 가야 합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반응 소개

← 성도의 삶과 대비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와 또 이들에게 이끌기에 지친 모세의 호소가 나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납니다.

← 성도의 상황설명

사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우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계부채, 주가폭락, 환율상승 등 연일 뉴스에서는 부정적인 소식이 들여 옵니다. 사실 뉴스에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 성도의 드러난 반응 소개

마트에 가서 정말 필요한 것만 샀는데도 예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2개 살 것 아껴 써야지 하며 1개 사고, 웬만하면 집었던 것도 도로 내려 놓습니다. 자영업 하는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이번 달엔 적자 보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늘 달고 삽니다. 적은 월급을 쪼개 남들 다하는 펀드에 투자했는데 하루하루 마이너스가 더해 가는 것을 보며 모아놓은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구나 하는 절망이 듭니다. 가장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힘겹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혼자 가족을 책임지고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괴롭습니다.

←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 (상황에 대한 절망)

이 모든 짐을 다 벗어 버리고 떠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져만 간다는 것이고, 언제 회복이 될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 하나님께 대한 원망들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야 만 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도와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b. 원인 이해의 단계

1) 적용할 점 : 고백의 단계

(1) 질문 : '하나님이 성도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2) 드러난 반응과 결과가 상황 때문이 아니고 숨겨진 마음의 동기(욕구) 때문임을 지적

(3) 마음 속에 숨겨 있는 동기와 우상을 찾아 깨닫게 해줌

2) 적용점에 따른 설교 분문 및 분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들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와 여자와 노인들도 함께 있는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얼어 죽지도, 타 죽지도, 굶어 죽지도 않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날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내려 있는 만나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다만 지금 자신들에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만 바라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던 것입니다.	← 상황에 대한 반응의 당위성 비판 ← 숨겨진 욕구 지적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단칸 월 세 방에 살 때는 방 두 칸만 되도 좋겠다고 여기지만 막상 두 칸짜리 집으로 가면 전세라도 얻을 돈이 있음 좋겠고, 전세를 살면 아무리 작아도 내 집이었으면 좋겠고, 작은 연립하나 장만하고 나면 아파트 가고 싶고, 20평 아파트 살면 30평 가고 싶고, 40평 가고 싶고, 타워 팰리스 살고 싶고…이렇게 끝이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탐욕(4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성도의 삶과 대비 숨겨진 욕구 지적
탐욕이라고 하면 나와는 너무 먼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난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먹고 만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정도가 정말 어느 정도 입니까? 조금만 더 편안하고, 조금만 더 안락하고, 조금만 더 많이 가지고, 조금만 더 많이 누리고, 조금만 더 안정되고 이것이 내 맘 속에 있는 한 내 입에	← 숨겨진 마음의 우상 지적

서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끝없이 '좀 더 좀 더'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일까요? 왜 더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나! 잘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없는 것, 힘든 것, 필요한 것들만 보이고 채워야 할 것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나의 어려움, 나의 부족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자신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등바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은 보이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고기 먹고, 부추, 파, 마늘, 외, 수박을 먹는 것이 이들에는 더 나은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진정 무엇때문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춰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셨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준비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

c. 방법 적용의 단계

1) 적용할 점 : 헌신의 단계

(1) 질문 :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2) 숨겨진 마음의 동기와 우상에 대한 직면의 말씀이 선포

(3)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약속의 말씀 선포

2) 적용점에 따른 설교 본문 및 분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코에 그 냄새가 싫어질 만큼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백성들로 인해 힘겨워 하던 모세에게는 70명의 장로를 붙여 주셨습니다.	←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약속의 말씀선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아직도 품에 품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배은망덕도 유분수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 만을 일삼는 이들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몸을 거룩히 하고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몸을 거룩히 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이제 불평과 원망을 그리고 죄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 우상에 대한 직면의 말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은 메추라기를 보고도 그치지 않아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민 11:33)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말았습니다. 끝없는 탐욕과 불신에 머물던 자들은 죽어 탐욕의 무덤(기브롯 핫다아와, 민 11:34)라는 곳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반면 자신의 짐이 무거워 불평하고 원망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70명의 장로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원인은 달랐지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던 것은 같았습니다.	←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70명의 장로들에게 자신에게 부어주신 같은 신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쏟아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모두가 선지자가 되어도 좋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인가? (회개와 믿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삶을 돌아 보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필요하다면 공급하십니다. 혼자 짐을 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는 자기 만을 바라 보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d. 방법 적용의 단계

1) 적용할 점 : 헌신의 단계

(1) 질문 :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2) 숨겨진 마음의 동기와 우상에 대한 직면의 말씀이 선포

(3)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약속의 말씀 선포

2) 적용점에 따른 설교 본문 및 분석

지금 사정과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 하지도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 보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고전 10:13 “사랑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 이러한 새로운 헌신이 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나를 바라 볼 때는 내 문제만 커 보이고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 상태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바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 어떻게 살 것인가?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기 위해 내게 이미 주신 은혜들을 찾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넉넉히 이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분명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바라 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제는 내 권한을 떠나 하나님께 맡겼으니 더 이상의 염려나 아등바등 거리지 말고 나는 다만 주께서 주시는 피할 길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

4. 서론과 결론의 구성

a. 서론

1) 적용할 점

(1) 청중의 관심 유도

(2) 본문과의 연결

(3) 경우에 따라 상황에 대한 설명

2) 적용점에 따른 설교 본문 및 분석

여러분 혹시 조개무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역사 박물관에 갔었는데, 석기시대 유물 중 조개무덤을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조개무덤은 그 시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류의 무더기가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 청중의 관심유도
도대체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무덤이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도 밤상치 않은 이름 '탐욕의 무덤'이란 뜻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탐욕의 무덤을 자세히 살펴 봄으로 박물관을 다녀온 것처럼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아는 것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 본문과의 연결

b. 결론

1) 적용할 점

(1) 문제, 원인, 해법에 대한 요약 설명

(2) 새로운 삶을 권면

2) 적용점에 따른 설교 본문 및 분석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힘들고 고되다고 말할 수 있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삶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더 나아져야만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기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 또한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 문제와 원인에 대한 요약 설명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형편, 나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끝없는 불평과 원망 밖에는 쏟아 낼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해법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삶(빌 4:13)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 바른 해법제시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새로운 삶을 권면

5. 나무 모델 구조적 틀에 따른 상담 설교 작성 메뉴얼

1) 1 단계 : 나무 모델에 따른 성경 분석

제목		
본문		
구성요소	본문 분석	본문 해석
뜨거운 태양(상황)		
악한 열매, 결과(반응과 결과)		
악한 뿌리(욕구)		
은혜(직면)		
선한 뿌리(소원)		
선한 열매, 결과(실천과 변화)		

<표 IV. 3> 나무 모델에 따른 성경 분석 표

2) 2 단계 : 나무 모델의 구성요소와 성도의 삶의 정황 대비

구성요소	성경 본문	현재의 적용점
상황	본문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반응과 결과	본문(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의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결과는 어떠한가?
욕구	본문(의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상발견하기)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우상인가?
은혜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가?
소원	본문(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가?
실천과 변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삶의 결과가 있는가? (있어야 하는가?)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삶의 결과가 있을 것인가?

<표 IV. 4> 나무 모델과 성도의 삶의 정황 대비 표

3) 3 단계 : 구성 단계에 따른 본문 작성

단 계	적용할 점	설교내용
문제 인식	1. 고려의 단계 1) 질문: 하나님이 성도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 본문 상황 설명에 따른 드러난 반응과 결과 소개 3) 성도의 삶과 대비	
원인 이해	2. 고백의 단계 1) 질문: 하나님이 성도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2) 드러난 반응과 결과가 상황 때문이 아니고 숨겨진 마음의 동기(욕구) 때문임을 지적 3) 마음 속에 숨겨 있는 동기와 우상을 찾아 깨닫게 해 줌	
방법 적용	3. 헌신의 단계 1) 질문: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2) 숨겨진 마음의 동기와 우상에 대해 직면의 말씀이 선포 3)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약속의 말씀 선포	
변화 형성	4. 변화의 단계 1) 질문: 이러한 새로운 헌신이 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2) 깨달은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 3)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4) 어떻게 살 것인가?	

<표 IV. 5> 구성 단계에 따른 본문 작성 표

4) 4 단계 : 서론 및 결론 작성

단계	적용할 점	설교내용
서론	1. 청중의 관심유도 2. 본문과 연결 3. 경우에 따라 상황에 대한 설명	
결론	1. 문제, 원인, 해법에 대한 요약 설명 2. 새로운 삶을 권면	

<표 IV. 6> 서론 및 결론 작성 표

IV. 결론과 제언

A. 요약

본 연구는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담과 설교를 이어주는 상담 설교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자 연구 되었다. 목회자는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풍성한 삶(요 10:10)을 살도록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올바는 복음이 선포될 때는 반드시 전인 치유가 나타난다.[1] 특히 상담의 내용을 포함한 설교는 실생활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치유 효과를 보게 할 수 있다.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들의 삶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어 주는 실제적인 설교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강담은 상담 설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상담 설교는 보편적으로 목회 상담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목회 상담이란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1]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의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며, 상처와 질병의 치유 및 인격과 신앙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상담 설교가 목회 상담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은 이러한 목회 상담의 특징 때문이다. 목회 상담과 설교는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회 보완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이러한 목회 상담과 설교 사역을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본 연구이다. 다시 말해 상담 설교 모델지시이다.

상담 설교란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 위기 고통 등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뿐 아니라 예방하고, 전인적인 변화와 성장과 구원을 이룸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다. 상담 설교의 성경적 배경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상담하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뿐 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놀라운 상담자이신 동시에 상담 설교자이셨다. 그리고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보낸 회람 서신에서도 상담 설교의 틀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성경적 배경을 통하여 상담 설교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담 설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도날드 캡스와 김만풍이 제시한 상담 설교의 구조적 틀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자는 이 두 모델을 대하면서 상담 설교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틀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두 모델 모두 상담의 과정과

주제를 가진 틀을 제시하였지만, 사실 상담 이론을 활용한 변화 모델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유용한 상담 이론을 접목한 구체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담 설교의 틀 – Paul Tripp's Tree Model - 을 제시하게 되었다.

상담 설교 틀을 위한 상담 이론은 성경적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는 성경적 상담 이론이 인간의 문제의 핵심을 마음의 문제로 보고, 또한 마음의 변화를 문제의 해결의 열쇠로 보기 때문이다. 성경적 상담은 아담스 이후 성경적 상담 2세들이 발달시킨 것으로 인간의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이 마음이 죄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진정한 변화는 마음이라는 통로를 거쳐야만 한다고 보았다.

성경적 상담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Heart 모델을 통해 설명하는데 이는 상담을 통해 성경적 관점으로 자신의 죄와 우상을 발견하여 자기 중심적이던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담은 성경적 상담 모델로 나무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를 맺는다는 마 7:16-18, 눅 6:43-49과 렘 17:5-8절 말씀을 근거한 모델이다.

뜨거운 태양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악한 열매, 악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고 악한 뿌리(욕구)때문이다. 선한 열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악한 뿌리를 선한 뿌리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

한 것이다. 완전한 변화는 은혜가 악한 뿌리의 핵심인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 적용되고, 이를 통해 악한 마음은 선한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 될 때 가능한 것이며, 그럴 때만이 지속적인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상담 모델인 나무 모델을 기초로 하여 상담 설교의 틀을 구성해 보았다. 나무 모델이 상담 설교로 적용될 때의 이점은 나무 모델이 목표하는 바와 설교가 목표하는 바가 같다는 것이다. 양자 모두의 목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무 모델을 상담 설교의 틀로 사용할 경우의 또 다른 이점은 나무 모델 자체로 성경을 분석할 수 있는 강해설교적인 요소와 상담적 통찰을 통해 우상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상담을 성경적 상담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무 모델을 기초한 상담 설교의 구성 단계는 문제 인식의 단계(상황, 반응과 결과), 원인 이해의 단계(욕구를 파악하는 단계), 방법 적용의 단계(은혜를 적용하는 단계), 변화 형성의 단계(소원을 가지고 실천 및 변화하는 단계)로 나누어 진다. 이것을 토대로 설교를 구성하는 구체적 절차는 본문을 정한 후 먼저 나무 모델에 따라 성경을 분석하고, 이것에 병행하여 현재 상황을 적용한다. 그 다음 본문을 석의한 후 설교의 제목을 결정하고 위에서 말한 구성 단계에 따라 설교 본문을 작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서론과 결론을 작성하는 것으로 상담 설교를 작성하면 되겠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성경적 상담 모델인 나무 모델을 상담 설교의 새로운 틀로 제시하고 그 구체적 작성 방법을 서술하고 그 예를 보임으로 상담 설교의 새로운 구조적 틀을 제안함으로 결론을 맺었다.

B. 연구의 제한성과 제언

목회 상담은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분야이다. 이러한 목회 상담의 많은 부분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상담 설교는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분야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제 중심의 상담 설교 구조에서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상담 설교의 구조적 틀을 제시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반면 본 연구의 제한점은 상담 설교의 구조적 틀의 기초가 되는 나무 모델이 상담 과정에 대한 모델이라는 점이다. 이것을 설교의 구조 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서 상담 과정에 속한 모든 부분을 찾아 낼 수 없는 제약점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나무 모델로 분석하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는 상담 과정의 부분들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상담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설교자가 상담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나무 모델을 이

용해 성경 본문을 분석할 수 있는 메뉴얼이 주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질문 항목들을 통해 간략한 메뉴얼을 제시하였지만 여러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좀 더 상세하고 정형화된 메뉴얼을 만든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회중들의 상담적 설교에 대한 반응은 전반적으로 이민 교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담 설교가 본인의 상황과 비슷한 내용을 다룰 경우에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설교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목회자와 대화를 하면서 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담 설교는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기에, 설교 후에 회중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이 제한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자가 이미 언급했듯이 상담 설교가 모든 상황을 다 담아 낼 수 없기에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하나의 제한점은 나무 모델은 성경적 상담 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였기에 성경의 폭 넓고 다양한 진리들을 모두 담아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폭넓고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 고통 받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에 유익한 더 많은 종류의 상담 설교들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또한 출애굽시 애굽의 보화를 취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한 것처럼 다양한 상담이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목회자의 몫이

라 할 수 있겠다.

보다 많은 상담 이론과 설교의 접목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위해 필자가 Paul Tripp의 저서들의 내용을 다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행동보다는 마음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해 온 그의 저서들을 접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필자를 시작으로 더욱 효과적인 상담 설교들이 제시되길 소망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 하려 한다.

부록

상담설교 구성을 위한 Paul Tripp 나무 모델에 근거한 설교 평가 1

- 성별 : 남자 (0) 여자 ( )
- 나이 : 44
- 예수님을 믿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모태신앙입니다.
- 보스톤 밀알 한인교회에 출석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 년입니다.
- 당신은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오전 7:20-30 분입니다.
- 당신은 일일 성경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 현재 당신의 신앙 건강 상태는 어떻게 봅니까? 건강합니다
- 당신은 설교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늘 배우기 때문입니다. 전에 몰랐던 부분을 아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성숙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생활에 적용해야 겠다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큰 맥락을 잡고 가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큰 흐름을 말해주는 설교를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핵심 키워드를 전해주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대원칙을 강하시기는 설교가 좋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주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 당신은 목회자에게 신앙 상담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전교회 목사님에게 신앙상담을 받았습니다. 밀착형으로 받았습니다. 내면의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일상의 대화에서 신앙의 대화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역모임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나누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접촉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 당신은 상담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민자들의 특징이 힘들고 낯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다보니, 대부분의 설교가 위로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담설교라는 것이 결국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고민과 문제를 미리 선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당신은 설교에 상담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리적은 부분을 다루면서 보통 인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부분정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고민했던 부분 때문에 설교에 집중이 잘 된다. 결론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던져 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삶에 적용하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플 때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치유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 당신은 목회자와 개인적 상담을 하는 것과 설교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대일 상담을 따라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대일 상담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 5배 정도의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 성경의 예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목회자가 상담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권위있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전달하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상담적 설교의 한계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설교가 상담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담아 낼 수 있는가? 설교에서는 보편적인 접근에 머무르는 것 같다. 상담은 개인의 특별한 상황을 다루어야 하는데 설교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화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설교 개선을 위해 목회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가끔 빠릅니다. 많은 내용을 한정된 시간에 전달하려다 보니 간혹 빨라집니다. 일반 젊은 사람들은 좋은데, 나이든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담설교 구성을 위한 Paul Tripp 나무 모델에 근거한 설교 평가 2

- 성별 : 남자 (　) 여자 (0)
- 나이 : 44
- 예수님을 믿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1년되었습니다.

- 보스톤 밀알 한인교회에 출석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 년입니다.
- 당신은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업무 시작 전에 합니다. 오전 9 시즈음입니다.
- 당신은 일일 성경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 현재 당신의 신앙 건강 상태는 어떻게 봅니까? 건강합니다
- 당신은 설교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주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 자신의 현재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깊이 있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쉬운 예나, 일상적인 예를 드는 것보다는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대의 상황과 역사를 알면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설교가 좋습니다. 그러나 제 설교 스타일은 새신자에게

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큰 그림과 함께 잔잔한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 당신은 목회자에게 신앙 상담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인생상담보다는, 신앙 생활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계속 물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답을 통해 저의 삶을 보았습니다.

- 당신은 상담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담을 받는 느낌의 설교인 것 같습니다.

- 당신은 설교에 상담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론을 이끌어 가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주제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위기 전환용으로는 좋습니다.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나의 예와 아주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의 처한 상황을 알아 주는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 당신은 목회자와 개인적 상담을 하는 것과 설교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안되지는 않지만, 개인 상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상담을 하는 자체가 상대를 믿는 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적인 것을 더 많이 바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는 아무래도 일방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도움이 덜 한 것 같습니다. 설교가 도움이 되지만 일대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 성경의 예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목회자가 상담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어느 예보다, 성경의 예가 가장 권위가 있고 도움이 됩니다. 다른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 상담적 설교의 한계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적인 설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데, 상담이라는 기술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상담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해야 하는데, 상담적인 요소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어떤 툴로는 사용되지만,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설교 개선을 위해 목회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설교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금요 설교 같은 경우에는 말씀에 더 갈구함이 있는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설교 구성을 위한 Paul Tripp 나무 모델에 근거한 설교 평가 3

- 성별 : 남자 (0) 여자 (   )
- 나이 : 51
- 예수님을 믿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교회를 다닌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아마도 2005년 정도에 받은 것 같습니다.
- 보스톤 밀알 한인교회에 출석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도 2008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 당신은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식사시간에 하는 정도입니다.
- 당신은 일일 성경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성경공부를 하거나 교회에 갈 때에 합니다.
- 현재 당신의 신앙 건강 상태는 어떻게 봅니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 아니 그 아래인 것 같습니다.
- 당신은 설교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마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교회를 그리 자주 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신앙 단계가 낮아서 그런지,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좀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성경 책의 사례도 좋지만, 요즘 사회나 주변 사람들의 사례들을 통한 설교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앙 성장 해 가는 이야기가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좋아합니다.

- 당신은 목회자에게 신앙 상담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당신은 상담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서로 소통하는 설교,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설교를 한다든지, 그 사례를 통해 회중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이 아니고 양 방향이 상담 설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당신은 설교에 상담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이 일반적인 성경이야기만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회중의 상황을 고려해 주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 당신은 목회자와 개인적 상담을 하는 것과 설교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익한 것은 개인 상담이 좋은데, 편하거나 부담이 없는 것은 설교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성경의 예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목회자가 상담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의 예보다는 아까도 말했는데,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예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현대 인물, 주변 인물의 사례가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상담적 설교의 한계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설교를 하게 되면, 개인 개인의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반응하더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교의 형식을 다양하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설교 개선을 위해 목회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초신자, 새신자를 위한 내용을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부부를 위한 설교, 아버지를 위한 설교, 아들을 위한 설교,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설교 후 친교 시간에 실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설교 시간에 그런 특별한 주제가 다루어 진다면 좋겠습니다. 월별로 어떤 특정 대상을 놓고 신앙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설교를 해 주셨으면 합

니다. 항상 모두를 위한 설교를 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대상을 월별로 나누어서 설교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설교 구성을 위한 Paul Tripp 나무 모델에 근거한 설교 평가 4

- 성별 : 남자 (   ) 여자 (0)
- 나이 : 46
- 예수님을 믿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는 99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 보스톤 밀알 한인교회에 출석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8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 당신은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합니다.
- 당신은 일일 성경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은 있습니다.
- 현재 당신의 신앙 건강 상태는 어떻게 봅니까?

  대답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점점 더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당신은 설교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의 상태를 생각해 보고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 보니,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

회를 못 갔을 때 힘든 것 같습니다.

-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다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삶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면 좋고, 어떤 때는 우리가 큰 그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제들이 다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것 같습니다. 너무 수필, 간증들이 많이 들어가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많이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적을 해주는 강한 설교가 좋습니다.

- 당신은 목회자에게 신앙 상담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 당신은 상담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상대 즉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처지, 상황에 맞추는 맞춤형 설교가 아닐까 합니다.

- 당신은 설교에 상담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포함되는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 당신은 목회자와 개인적 상담을 하는 것과 설교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와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경의 예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목회자가 상담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결국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해석이나 상황이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구요.

- 상담적 설교의 한계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상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사례가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설교를 통해 이것이 내 이야기 인 것 같을 때 놀래기도 합니다. 혹시 목사님이 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 설교 개선을 위해 목회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부부인 것은 많은데, 어떤 때는 너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시적 거시적인 안목에서 설교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다양하게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부분에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어 졌으면 합니다.

상담설교 구성을 위한 Paul Tripp 나무 모델에 근거한 설교 평가 5

- 성별 : 남자 ( ) 여자 (0)
- 나이 : 60
- 예수님을 믿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는 11년 되었습니다.
- 보스톤 밀알 한인교회에 출석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는 처음 신앙생활이 밀알교회입니다. 남편 수술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11년이 되었습니다.
- 당신은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예,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기도를 바로 합니다. 매일 규칙적은 아니지만 할려고 노력중입니다.
- 당신은 일일 성경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매일 읽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 그러나 노력중입니다.
- 현재 당신의 신앙 건강 상태는 어떻게 봅니까?

  좋은 편입니다.
- 당신은 설교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저의 생활에 완전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일상상활에 항상 설교를 적

용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근본을 설교를 통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설교가 아주 중요하고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비유를 많이 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당신은 목회자에게 신앙 상담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당신은 상담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 당신은 설교에 상담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담이 됩니다.

- 당신은 목회자와 개인적 상담을 하는 것과 설교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편한 것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설교가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으면서도 후회가 많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교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경의 예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목회자가 상담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본인에게 와 닿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 이야기를 해석해 주고 나와 적용해 주면 아주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 상담적 설교의 한계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설교는 자주 하는 것보다는 종종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적용하는 편입니다. 저의 삶에 적용을 많이 합니다. 상담 설교가 나의 상황을 스크린 해주니 좋기는 하지만, 자주 된다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들키는 것 같아서요.

- 설교 개선을 위해 목회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하실 때, 음성이 높아질 때, 조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위기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적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설교 구성을 위한 Paul Tripp 나무 모델에 근거한 설교 평가 6

- 성별 : 남자 (0) 여자 ( )
- 나이 : 60
- 예수님을 믿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는 미국와서 믿었습니다. 약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보스톤 밀알 한인교회에 출석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도 11년이 되었습니다.
- 당신은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저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가끔 하는 중입니다.
- 당신은 일일 성경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자주 가까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중입니다.
- 현재 당신의 신앙 건강 상태는 어떻게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통입니다. 자라가는 중입니다.
- 당신은 설교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당연하지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 때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 말씀이 양식이 되니까요.
-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일상의 비유를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 당신은 목회자에게 신앙 상담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깊게는 아니고 간단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당신은 상담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상담설교를 잘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설교가 더 낳은 것 같습니다. 작은 한 마디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은 안 합니다.

- 당신은 설교에 상담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이 아니라, 가끔이면 좋겠습니다. 이민교회 특성상 그런 내용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 당신은 목회자와 개인적 상담을 하는 것과 설교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 좋은데, 설교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하면 좀 더 심도 있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성경의 예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목회자가 상담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생각들이 영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 상담적 설교의 한계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적으로 자꾸 하다보면, 개인적인 일을 터치하는 것 같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보다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설교 개선을 위해 목회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어떨 때는 속도가 빠릅니다. 말이 빨라서 이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설교 구성을 위한 Paul Tripp 나무 모델에 근거한 설교 평가 7

- 성별 : 남자 (0) 여자 ( )
- 나이 : 37
- 예수님을 믿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는 24년 되었습니다.

- 보스톤 밀알 한인교회에 출석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4년 4개월정도 됩니다.

- 당신은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예, 보통 새벽에 6즈음에 합니다.

- 당신은 일일 성경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 현재 당신의 신앙 건강 상태는 어떻게 봅니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당신은 설교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어떤 한편의 설교를 들었을 때, 기억이 남는 경우도 있고, 여러번의 설교를 통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의 영적 자양분과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것 같아 좋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명확하게 신앙적 원리가 전달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 당신은 목회자에게 신앙 상담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 당신은 상담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더 일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 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당신은 설교에 상담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 당신은 목회자와 개인적 상담을 하는 것과 설교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 상담보다는 설교를 통해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편한 것 같습니다.

- 성경의 예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목회자가 상담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성경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일반적인 원리로는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일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상담적 설교의 한계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자의 인식에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중

들을 더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설교 개선을 위해 목회자게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상담설교 구성을 위한 Paul Tripp 나무 모델에 근거한 설교 평가 8

- 성별 : 남자 (   ) 여자 (0)

- 나이 : 42

- 예수님을 믿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부모님들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지는 1996년도입니다.

- 보스톤 밀알 한인교회에 출석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5년정도 되었습니다.

- 당신은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예, 아침에 주로 합니다.

- 당신은 일일 성경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 현재 당신의 신앙 건강 상태는 어떻게 봅니까?

  힘든 것은 아니지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체되지는 않고 진행중입니다.

- 당신은 설교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제 삶을 확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지적인 설교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설교가 좋습니다. 실제적인 경험을 담은 설교가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 당신은 목회자에게 신앙 상담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업습니다.

- 당신은 상담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통해 회중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당신은 설교에 상담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설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상황과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 당신은 목회자와 개인적 상담을 하는 것과 설교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 성경의 예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목회자가 상담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투영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상담적 설교의 한계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 상담은 서로 주고 받고 대화를 통해서 피드백을 바로 받지만, 설교는 일방적이라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피드백도 없고요. 설교를 보조 할 수 있는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설교 개선을 위해 목회자게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저는 영어권에 자랐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설교 구성을 위한 Paul Tripp 나무 모델에 근거한 설교 평가 9

- 성별 : 남자 (0) 여자 ( )
- 나이 : 25
- 예수님을 믿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는 15년 되었습니다.
- 보스톤 밀알 한인교회에 출석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3개월 반되었습니다.
- 당신은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합니다.
- 당신은 일일 성경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 아침에 합니다.
- 현재 당신의 신앙 건강 상태는 어떻게 봅니까?

  자라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정체 되었는데 지금은 좋습니다.
- 당신은 설교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도움이 됩니다. 복음을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설교를 통해 들으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강해 설교를 좋아합니다. 한 책을 시리즈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당신은 목회자에게 신앙 상담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릴 적, 청년부 시절에 한 것 같습니다.

- 당신은 상담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 주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적 설교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 당신은 설교에 상담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 당신은 목회자와 개인적 상담을 하는 것과 설교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상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중이 어떻게 생가하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 대화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성경의 예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목회자가 상담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예를 안좋아하는 이유가, 우리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성경을 보면, 나와 같은 죄인이고,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더 이해해가면서 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상담적 설교의 한계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 접촉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대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자신의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설교를 영향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설교 개선을 위해 목회자게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원어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어도 좋겠습니다. 원어를 분석해 주시니 좋습니다.

상담설교 구성을 위한 Paul Tripp 나무 모델에 근거한 설교 평가 10

- 성별 : 남자 (　　) 여자 (　0　)

- 나이 : 41

- 예수님을 믿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는 오래 되어습니다. 거의 30년 정도입니다.

- 보스톤 밀알 한인교회에 출석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4년 반정도됩니다.

- 당신은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그냥 틈나는 시간에 합니다.

- 당신은 일일 성경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도 고정적으로는 못하고요. 아이들이 자면 틈틈이 합니다.

- 현재 당신의 신앙 건강 상태는 어떻게 봅니까?

  저도 자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 당신은 설교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예배중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설교를 통해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많이 알게 됩니다.

-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강해설교를 좋아합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 당신은 목회자에게 신앙 상담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대학때 있습니다.

- 당신은 상담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회중의 상태를 위로해 주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오신 것처럼,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설교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선을 넓혀주는 설교라 생각합니다.

- 당신은 설교에 상담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힘도 생기는 것 같아 좋다고 생가합니다.

- 당신은 목회자와 개인적 상담을 하는 것과 설교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교를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을 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설교를 통해 큰 원리를 받고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설교가 좋습니다.

- 성경의 예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목회자가 상담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살아 와서 그런지, 설교를 통해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의 예가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 상담적 설교의 한계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자라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초신자나 새로운 신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상과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설교 개선을 위해 목회자게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좋습니다. 더 길어도 좋습니다. 말씀을 더 길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한국어]

강준민, *관계의 법칙*, 서울: 두란노서원, 2005.

김경수, *치유설교*, 서울: 예루살렘, 2004.

김덕수,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 서울: 쿰란출판사, 2005.

김만풍, *상담설교*,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5.

김한성, *상담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류영모, *치유가 있는 교회*, 서울: 나침반, 2000.

이관직, *목회 상담학*, 서울: 한국목회상담연구소, 1999.

이주영, *현대설교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0.

염필형, *현대신학과 설교형성*, 서울: 감신대학출판부, 1991.

소강석,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없다*, 서울: 나침반, 2005.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옥한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서울: 나침반사, 1983.

_____.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서울: 두란노서원, 1987.

_____. *시험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서울: 두란노서원, 1989.

_____. *나의 고통 누구 탓인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이동원, *이렇게 밤을 지나라*, 서울: 나침반사, 1989.

_____.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서울: 나침반사, 1992.

_____. *회개행전*, 서울: 규장, 2000.

_____.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1.

정태기, *상담설교의 가능성과 전망*, 서울: 두란노, 1996.

전영복, *기독교 상담학*, 서울: 엘멘, 1994.

정근두, *로이드존스의 설교론*, 서울: 여수룬, 1994.

주성호, *21세기를 위한 설교*, 서울: 대한기독서회, 2001.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서울: 판 베다니, 2002.

홍정길, *중년의 위기*, 서울: 크리스챤서적, 1993.

_____.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서울: 크리스챤서적, 1994.

[한국어 : 번역본]

게리 콜린스, *훌륭한 상담가*,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__________. *효과적인 상담*, 정동섭 역, 서울: 두란노, 1984.

__________. *크리스천 카운슬링*, 피현의, 이혜련 역, 서울: 두란노, 1985.

게리 걸블랜슨, *목회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진우 역, 서울: 횃불, 1994.

데이빗 폴리슨, *"성경적 변화의 역학", 『성경과 상담의 본질』* 서울: 도서출판 선교 횃불, 2007.

던캔 부케넌, *예수님은 어떻게 상담하셨을까?*, 천장웅 역, 서울: 아카페, 1997.

도날드 캡스, *목회상담과 설교*, 서울: 솔로몬, 1996.

릭 웨렌, *설교분석 리포트*, 김의종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1999.

부르스 리치필드, 넬리 리치칠드, 정동섭 역,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서울: 예수전도단, 2002.

시워드 힐트너, *목회신학 원론*,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서회, 1979.

워런위어스비, *상상이 담긴 설교*, 이장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윌리엄 윌리몬, *통합적 설교자로서의 목회자*, 차호원 역, 서울: 소망사, 1985.

제이 아담스, *복음주의 목회상담*, 전동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3.

제럴드 케네디, *설교의 이론과 실제*, 백리언 역, 서울: 대한기독서회, 1980.

제이 아담스, *설교의 시급한 과제*, 이길상 역, 서울: 아가페, 1996.

존 머레이, *조직신학 II*,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1.

토마스 오덴, *케리그마와 상담*, 서울: 전망사, 1983.

테리 G, 카터, J. 스코트 듀발, J. 다니엘 헤이지, *성경설교*, 김창훈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9.

폴 트립,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황규명 역, 서울: 디모데, 2007.

하워드 클레너블, *목회상담신론*, 박근원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87.

해돈 W. 라빈슨, *강해설교*,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헤롤드 브리라이슨, 제임스 타일러, *청중의 필요를 채우는 설교 작성법*, 정성영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기타]

김만풍, "상담설교의 주제와 내용." *그말씀*, (11월 1994): 134.

김준수, "성경적 상담을 위한 인간이해." *성경과 상담*, 제 2권 (11월 2002): 94.

김한성, "상담설교의 목회적 실용성에 관한 연구(3)." *가정과 상담*, (10월호 2001): 20.

송길원, "상담설교의 필요성." *그말씀*, (11월호 1994): 106.

심상권, "설교와 목회상담." *그말씀*, (11월호 1994): 162.

오성춘, "치유와 상담설교." *그말씀*, (11월호 1994): 148-49.

유영권, "목회상담적 설교." *신학논총*, 제 29호 (10월호 2001): 439-43.

정태기, "상담설교의 가능성과 전망." *그말씀*, (11월호 1994): 134.

진요섭, "목회상담과 설교의 통합 가능성(1)." *가정과 상담*, 제 46호 (11월호 2001): 41.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방법으로서의 자료 수집과 분석." *개혁논총*, 제 2권 (10월호 2004): 161-63.

_____, "기독교 상담에서의 직면과 복음." *복음과 상담*, 제 4권 (2월호 2005): 13-25.

_____,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성경적 접근." *총신대 논총*, 제 24호 (11월호 2004): 405.

_____, "상담과 목회의 실제." *성경과 상담*, 제 2권 (9월호 2002): 55-64.

[논문]

김모세, "목회적 돌봄과 상담에서 성서사용" Ph.D. diss., 감리교신학대학원, 2011.

김범준, *"상담설교를 통한 치유사역의 가능성 연구"* M.Div. diss., 장로회신학대학원, 2004.

김병진, *"목회적 돌봄을 위한 상담설교의 적용 가능성 연구"* M.Div. diss., 총신대신학대학원, 2001.

김인집, *"상담설교의 치유 기능에 관한 연구"* M.Div. diss., 총신대신학대학원, 1996.

김한성, *"상담설교의 목회적 실용성에 관한 연구"* M.Div. diss., 장로회신학대학원, 2001.

박세환, *"상담설교에 있어서 REBT의 적용에 관한 연구"* M.Div. diss., 장로회신학대학원, 2006.

박해철, *"REBT에 따른 상담설교의 목회적 적용 연구"* Ph.D. diss., 호남신학대학교, 2006.

신재덕, "예수님의 상담에 관한 분석과 독특성 연구 : 성경적 상담 관점으로" Ph.D. diss.,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7.

오승훈, "목회상담에 의미요법에 적용방안 연구" M.Div. diss., 장로회신학대학원, 2007.

우성민, *"상담설교의 목회 적용에 관한 연구"* M.Div. diss., 총신대신학대학원, 2003.

이충호, *"21세기 강단 위기의 대안으로서 상담설교에 관한 연구"* M.div. diss.,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2003.

장원철, "목회자의 성경적 의식구조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목회상담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Ph.D. diss., 총신대신학대학원, 2004.

조주희, *"상담적 설교 방법론에 관한 연구"* M.Div. diss.,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2004.

진요섭, *"목회상담과 설교의 통합 가능성"* M.Div. diss., 서울신학대학원, 2001.

정풍기, *"현대 상담 설교의 방법론 수립과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M.Div. diss., 호남신학대학교, 2002.

최상익, *"로랜스 크랩의 성경적 상담의 '상담설교' 적용에 관한 연구"* M.Div. diss., 장로회신학대학원, 2000.

[영어]

Adams, Jay E.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9.

Adams, Jay E. *The Use of Scriptures in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Co, 1975.

Anderson, Neil T. Terry E. Zuehlke, Julianne S. Zuehlke, *Christ Centered Therapy*.

Grand Rapids: Zondervan, 2000.

Benner, Daivid G. *Care of Souls*.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Co, 1998.

Braga, James. *How to Prepare Bible Message*. Portland: Multnomah, 1981.

Brown, Raymond. *The Message of Hebrews*. Illinois: IVP, 1982.

Bruce, F.F. Tyndale, *Romans, New Testament Commentary*. Illinois: IVP, 1985.

Capps, Donald. *Pasotral Counseling and Preaching.*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0.

Chapell, Bryan.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Christ-Centered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Co, 1994.

Crabb, Lawrence J.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7.

Dearman, J. Anderew. *Jeremiah, Lamentation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3.

Duguig, Lain M. *Ezekiel, The NIV Application Commne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9.

Fosdick, Harry Emerson. *"A Faith For Tough Time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2.

Greidanus, Sidney.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8.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1994.

Hendrickson, William. *Exposition of Ephesians,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ipds: Baker Books House Co, 1967.

Holifield, E. Brooks. *A History of Pastoral Care in America*.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Idleman, Kyle. *Gods at war: Defeating the idols that Battle for Your Heart.* Grand Rapids: Zondervan, 2013.

Jacks, G. Robert. *Just Say the Word: Writing for the Ear*. Grands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6.

Johnston, Graham. *Preaching to a Postmodern World*.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Co, 2001.

Karl Friedrich, Keil and Franz,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ment*.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866-91.

Killinger, John. *Fundamentals of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1985.

Lane, Timothy S and Tripp, Paul David. *How People Change*. Greensboro: New Growth Press, 2006.

Linn, Edmund Holt. *"Preaching as counseling; the unique method of Harry Emerson Fosdick"*. Philadelphia: Judson Press, 1966.

MacArthur, John. *Counseling: How to counsel Biblically*. Nashville: Nelson Reference & Electronic, 2005.

Moo, Douglas J. *Roman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0.

Mounce, Robert H. *Roman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5.

Oden, Thomas C.*Kerygma and Counseling : toward a covenant ontology for secular psychotheraph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8.

Powlison, David. *"Competent to Counsel? The history of a Conservative Protestant Anti-Psychiatry Movement"*, Ph.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6.

Robinson, Hadd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2nd ed.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Co, 1980.

Robinson, Haddon and Olford, Stephen. *Anointed Expository Preaching*.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8.

Stowell, Joseph. *"Preaching for Change" in The Big Idea of Biblical Preaching*, ed, Mathews, Kenneth A. *Genesis 1-11:26,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ume 1A*. Nashville: Brodaman & Holman Publishers, 1996.

Swetland, Kenneth L. *Facing Messy Stuff in the Church*. Grand Rapids: Kregel Academic & Professional, 2005.

Thune, Bob and Walker, Will. *The Gospel Centered Life*. Greensboro: New Growth Press, 2011.

Tripp, Paul D.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2002.

___________. *New Morning Mercies: A Daily Gospel Devotional.* Wheaton Illinois: Crossway, 2014.

___________. *Parenting: 14 Gospel Principles That Can Radically Change Your Family*. Wheaton Illinois: Crossway, 2016.

___________. *Awe: Why It Matters for Everything We think, Say, and Do*. Wheaton Illinois: Crossway, 2015.

___________. *Dangerous Calling: Confronting the Unique Challenges of Pastoral Ministry.* Wheaton Illinois: Crossway, 2012.

___________.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Mdeitations on God and Trouble*. Wheaton Illinois: Crossway, 2009.

____________. *What did You Expect? Redeeming the Realities of Marriage*. Wheaton Illinois: Crossway, 2010.

____________. *Whiter Than Snow: Meditations on Sin and Mercy.* Wheaton Illinois: Crossway, 2008.

Walvoord, John F and Zuck, Roy B. Genesis,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Wheaton Illinois: Victor Books, 1983.

Welch, Edward T. *Blame It on the brain?*.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98.

Welch, Edward T.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97.

Willhite, Keith. *"A Bullet versus Buckshot: What Makes the Big Idea Work?" in The Big Idea of Biblical Preaching*, ed, Keith Willhite and Scott M Gibson.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Co, 1998.

VITA

ILLJONG PARK (July 16 1974 and Seoul, South Korea)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ystematic Theology, MDIV, 2004

Chongshin University, Systematic Theology, THM, 2006

Liberty Theological Seminary, New Testament, THM, 2007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Counseling, MA, 2009

Potchefstroom University, Biblical Counseling, PHD (Candidate), 2008-2011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The 21st Pastoral Skills (Counseling and Preaching), DMIN, 2012-2018